

조선대학교 소식

Vol.241 2018. 1월호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건학이념

조선대학교는 부강한 국가건설과 세계인류 공영을 위해 봉사하는 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 개성교육 : 창조적 정신으로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인재를 기른다.
- 생산교육 : 교육의 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생산교육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봉사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 영재교육 : 폭넓은 장학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영재를 육성한다.

교육목적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이념과 본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연구와 교수 및 사회봉사를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개성을 중시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
-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인재 양성
-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회지도자 양성
-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인재 양성



- 4 신년사
- 6 특집
조선대학교 악성암돌연변이 연구센터 센터장 유호진 교수
- 12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캠퍼스 갤러리
- 13 핫뉴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경기장 조선대학교 선정
식품영양학과 장해춘교수 연구팀 천연항균제 기술 개발 성공 대통령상 수상
(주)가운코리아 '2017년 벤처창업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
기억의 계단 설치
2017 CU 산학협력EXPO 개최
브릿지인재양성사업단 제6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 20 클릭 캠퍼스
- 31 사람들
- 38 중앙도서관 | 도서관이 살아있다
- 42 잘 가르치는대학 | ACE사업
- 46 연구·특성화사업단
LINC+사업단
SW융합교육원
융접접학과공학과 융접공정 및 설계연구실 탐방
- 52 교류 협력
- 54 입시 정보
조선대학교 2018학년도 정시모집
- 58 열린 대학 | 미래사회융합대학,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 62 학생 공동 구역
- 67 잡아라 잡(job) | 대학일자리센터
- 70 동문 한마당
- 75 총장 동정
- 76 병원 소식
- 86 치과 병원 소식
- 92 CU Again 7만 2천 발전기금



혁신적 교육 모델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모델을 구축으로 “아시아 최고의 대학 르네상스” 창출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선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성원 모두가 대학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민족 민립 역사를 지닌 조선대학교가 대학 민주화 운동으로 선도하였던 1988년 1.8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30년은 민족, 민립의 경계를 넘어 민주화를 성숙시키고 새로운 대학 연구가치를 창출하여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 사회에 공헌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간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 대학평가 상위 3.5%, 대학특성화사업평가 A등급 획득, 대학기관평가인정 우수사례 선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등 호남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인증 받은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지원사업, 평생교육체제 대학지원사업,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치매국책연구사업 등 1,400억 원에 달하는 국책 및 연구사업을 이루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이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치매 연구와 암악성돌연변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 학교의 Great한 업적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아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문제해결형 융복합 개방형교육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모델은 6C 핵심역량, 즉 소통(Communication), 융합(Convergence), 창의(Creativity), 특화(Characterizing), 도전(Challenge), 공헌(Contribution)이 포함되는 ‘함께형’ 인재를 육성하여 디지털문명공동체 사회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요즘 누구나 ‘대학의 위기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대학의 생존은 교육, 연구, 진료, 산학협력, 평생교육, 사회연대 분야의 혁신을 통하여 ‘국제화·특성화·융합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정·협 공동체’ 문화가 대학 구성원 사이에 확산·정착되어야 합니다. ‘홍’은 서로를 신뢰하고 칭찬하는 신비람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수고에 따른 성과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면 ‘홍’이 나고 ‘정’이 쌓여 ‘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 졸업생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 간의 의사소통과 성숙한 민주적 합의정신으로 ‘특화된 미래대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는 인생의 전부가 고등학교 시절의 성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개성적인 삶과 행복을 위한 가치 중심의 인재상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제2의 대학 창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가치 중심의 Great 대학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민립대학으로서 조선대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원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지닌 법인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대학 대내외적으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경기장으로 조선대학교가 선정됨으로써 우리대학의 국제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시청자가 국립공원 무등산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조선대학교 캠퍼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년 하이다이빙 개최에 대응하는 ‘캠퍼스 갤러리화’ 추진과 대학의 내실화 및 국제화를 위한 노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 갈 것 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맞이하여 아시아 100대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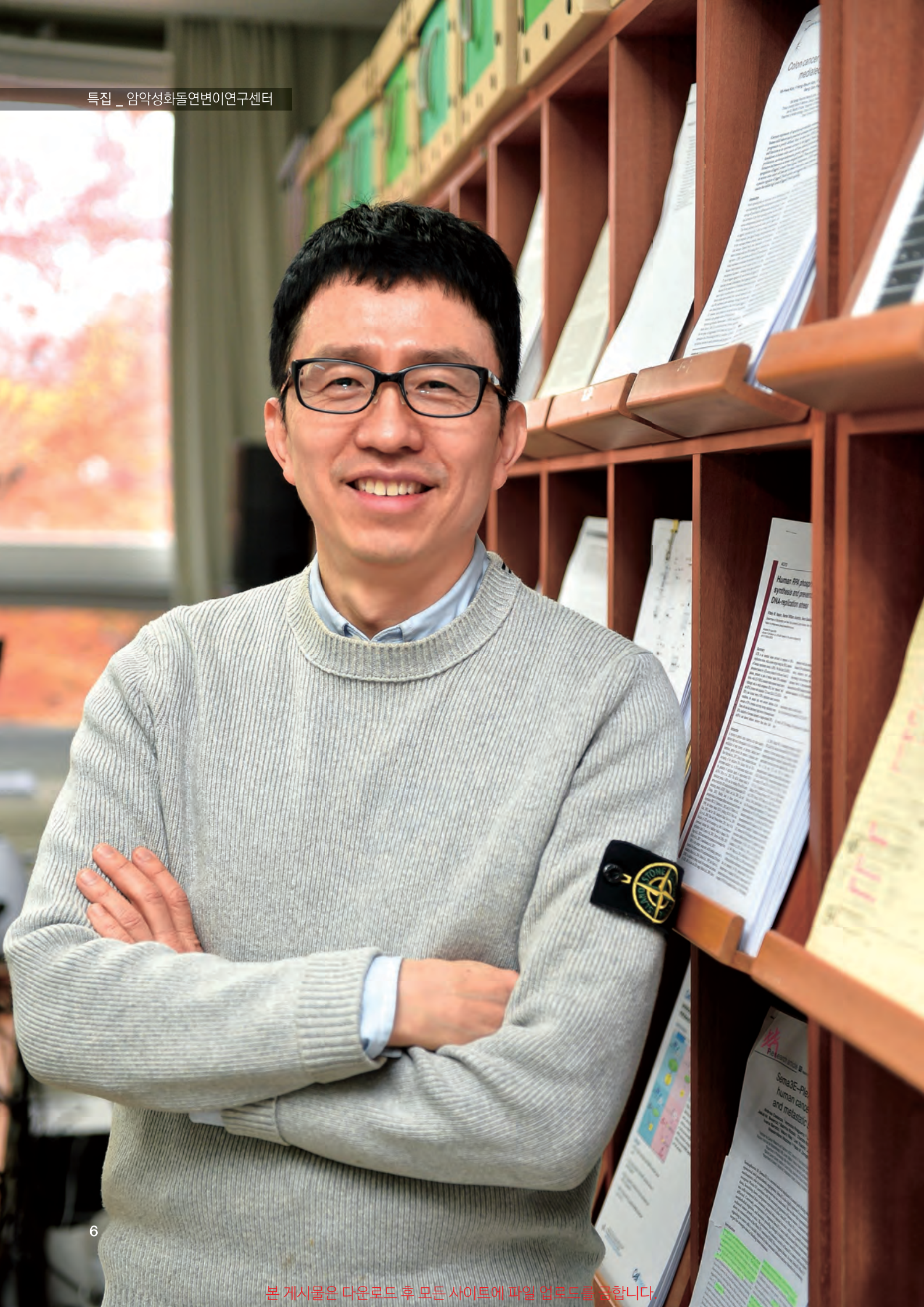
사랑하는 구성원 여러분

새해에도 저는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제4차 산업시대와 남북평화통일시대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교육모델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모델을 구축하여 “아시아 최고의 대학 르네상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동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조대인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만사형통 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조선대학교 총장 강동완 올림





조선대학교 암악성화돌연변이연구센터

유호진 교수 연구팀

DNA 돌연변이 발생 억제 새로운 단백질 규명

조선대학교 암악성화돌연변이연구센터 유호진 교수 연구팀이 DNA 손상을 인지하여 DNA 돌연변이 발생을 억제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규명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DNA는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DNA가 손상되어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암 발병 및 항암제 내성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손상된 DNA를 정상화하는 과정은 암을 포함해 각종 질병 억제에 필수적이다.

유전자 복구 단백질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2015년에는 손상된 DNA의 복구 메커니즘을 규명한 3명의 과학자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DNA의 손상 부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복구하도록 지시하는 구체적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DNA가 손상되었을 때 이를 인지하고, DNA를 정상화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상위 조절자, ID3 단백질(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핵 내 단백질)을 새롭게 규명했다. 유호진 교수는 손상된 DNA가 돌연변이로 변질되기 전에 정상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DNA 돌연변이 억제를 통해 암 발병, 암 전이, 암 치료 내성 등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10월 12일에 게재되었다.



dongA.com

2000-10-16 18:43:00 편집

[노벨상 이후 한국] 두번째 노벨상 누가 탈까?

21세기 두 번째로 한국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줄 인물은 누구일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과학과 문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살펴본다. ▼과학분야▼ 노벨상은 물리 화학 생리학 등 과학 분야의 성이 다당하고 역사도 길다. 과학자들은 당장 상을 받을 만한 국내 과학자를 찾기 힘들고, 받는 데 해도 재미 과학자에게 영광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보는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화학과 김성호 교수. 그는 1970년 전달RNA의 3차원 구조를 밝혀냈다.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로 추천된 김교수는 1987년 세계 최초로 발암단백질 라스의 3차원 구조를 밝혀내기도 했다.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주인공 이화수 박사와 단막이었던 미국 컬럼비아대 물리학과 이원웅 교수도 후보로 자주 거론된다. 이교수는 고에너지 소립자 물리학 분야 권위자로 1980년대 초 발표한 논문 '양성자-반양성자의 소멸'은 소립자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세포 신호전달 연구분야에서 독보적 존재인 미국 국립보건원(NIH) 이석구 박사도 노벨상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 세대로는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투 단서를 밝힌 미국 MIT대의 교포 2세 피터 김 교수와 뇌졸중의 메커니즘을 밝힌 옥성탄의대 데니스 최 교수. 노벨 생리학의학상 보통 임상에서 성과가 나온 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의학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메이즈와 뇌졸중 등의 치료법에 나온다면 이들 40대가 수상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학자 중엔 고체물리학자로 새로운 원자의 구조 계산법과 나노 유브 반도체를 개발한 서울대 물리학과 임지은 교수. 1976년 유형성출혈을 일으키는 헌팅틴 단백질을 밝혀낸 이호형 박사(아산생명과학연구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등과학원 김경욱 원장은 "앞으로 10년 내에는 국내 수상자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초분야에 대한 투자가 없고 응용분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대 신경과 고재영, 전남대 의과학과 이재은, 조선대 의과학과 유호진 교수 등 10~20여년 뒤의 노벨상 수상후보로 거론되는 과학자는 적지 않다. ▼문학분야▼ 그동안 우리나라가 노벨상에 가장 희망을 걸었던 분야가 문학상. 어느



악성암 연구의 최고 권위자 유호진 교수 인터뷰

조선대학교 암악성화돌연변이연구센터장인 유호진 교수를 직접 만나서 센터의 역할과 목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악성암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센터는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질병 심각도가 가장 높은 질환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암 사망의 대부분은 악성암 때문이며, 실제 암 발병보다 암 악성화가 더 심각한 문제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영역입니다.

* 지난 수십년간 암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진단과 치료기술들이 개발되었다. 특히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고형암만을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암사망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욱이 오랜 기

간 많은 비용을 들인 표적치료제는 3~12개월 정도밖에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되는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차단하는 약물 개발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암 발생 과정으로 생성된 초기 암세포는 세포내·외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 돌연변이가 축진되고 결국에는 이들 환경에 적응하여 전이능력, 재발, 방사선 및 항암제 저항성을 가지는 악성암이 출현합니다. 따라서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변화되는 과정 자체보다도, 이미 형성된 암세포에 추가로 생기는 돌연변이로 인한 암세포의 변화가 암치료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조선대학교 암악성화돌연변이연구센터는 암악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 원인을 규명하여 악성암 억제 및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암환자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5년 6월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선도연구센터(MRC) 신규과제에 선정되어 설립되었습니다.

* 조선대학교 암악성화연구센터는 악성암을 극복하여 암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과기부/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선도연구센터인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센터(MRC)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22년 까지 7년간 총 70억을 지원받아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와 활동은?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센터에서는 암악성화에 관여하는 원인 인자를 규명하여 악성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초-임상 중개연구를 통하여 ▲악성암 유발 돌연변이 제어연구 ▲악성암 바이오마커 개발 ▲암돌연변이 표적분자를 이용한 악성암 치료기술개발 등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그동안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의 악성화 과정을 연구하여 ▲악성 대장암을 유발하는 단백질 발견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한 악성유방암 치료타겟 규명 ▲예후가 불량한 악성췌장암 유발원인 및 조기 진단마커를 발굴(특허 출원 중) ▲세포내 스트레스 입자형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암세포의 치료 내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Nature Communications, 2016). 그리고 이번 10월에 본 연구센터에서 보고한 DNA 복구 조절 단백질은 악성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단백질입니다(Nature Communications, 2017). 이 단백질의 발견을 계기로 치료가 어려운 악성암의 예방 및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연구센터 인력이 융합연구팀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악성암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 연결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화학, 세포생물학, 약리학 등의 기초학자와 임상 의사 측면에서 각각 악성암의 원인을 이해하여 악성암을 유발하는 타겟을 발굴하면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발굴된 표적을 기반으로 바이오마커를 개발함으로써 조기 진단법을 확립하고, 규명된 기전을 바탕으로 한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초의과학자, 약학자, 임상 의사, 개발회사들이 공동으로 집단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극대화 가능합니다. 현재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센터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조선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주)천렵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13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협동 및 임상기초 중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에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성공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수한 인력 확보와 연구팀 간의 협력관계입니다. 특히 결과를 도출하는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교수, 그리고 이들과 함께 연구결과를 함께 토의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를 이끌어가는 참여교수들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성공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독립을 보장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며, 연구 성과를 획득하면 다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동 토의를 통하여 냉철하게 분석함으로써 본인의 분석능력도 키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패를 통하여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가 실패하였을 때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센터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연구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는 유전학, 병리학, 생물정보학, 암줄기세포학, 미세환경, 항암제 내성 등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한 유기적 연결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상-기초 중개연구를 통하여 진단 및 치료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연구비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 사업에서 제공하는 장기간 연구비 지원 덕택으로 다학제간 협동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센터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이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단연구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연구결과와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Q. 연구센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 센터가 지향하는 목표는 '암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인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자.'는 연구 철학을 바탕으로 악성암을 제어하는 인자들을 규명하여 악성암 진단 및 치료 타겟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악성암 치료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 바이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바이오 미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암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암악성화돌연변이의 융합연구 ▲산업체-대학 연계 연구 ▲환자중심연구를 통하여 바이오 미래 전략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악성암 진단과 치료 타겟 확보 ▲악성암 진단 칩 개발 ▲신개념 치료제 개발 ▲중개연구 전문인력양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또한 악성암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악성암 진단 및 치료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신산업과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2015년도에 저희 센터가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악

성암을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원인 인자들을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발굴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악성암 진단,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참여 연구진 모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암악성화돌연변이연구센터(MRC)는 **암악성화돌연변이 기전 규명을 토대로 악성암을 극복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가지고 제안되었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암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학문적으로는 전세계적 난치질환의 기전을 규명하고 악성암 극복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류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와 각오를 가지고 본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센터장 유호진 교수 소개

• 학력

1987 조선대학교 의학사
1989 조선대학교 의학석사
1994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 경력

1997 ~ 1999: 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박사후연구원
2000 ~ 2004: 조선대학교 부교수
2005 ~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
2015 ~ 현재: 암악성화돌연변이연구센터 센터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약리학 전공)를 취득하였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 교실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여, 3년간 미국 아틀란타(Univ. of Emory)의 세계적인 암악성화돌연변이 제어연구 권위자인 Paul W. Doetsch 연구실에서 연수과정을 거치면서 악성암을 대상으로 하는 돌연변이 제어연구를 시작하였다. 1999년 귀국 후 자신의 연구 영역을 체계화하여 암세포에서 유전자 손상복구 단백질들의 기전 및 암악성화돌연변이 제어인자 규명 그리고 이들이 항암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독창적인 기초연구와 산학협동 응용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동안의 연구 경험으로 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연구성과

○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분야

유호진 교수는 1999년 Science에 RNA 돌연변이를 통한 돌연변이 단백질이 생성됨을 최초로 규명한 이래 현재까지 암악성화돌연변이 제어 유전자/단백질 발굴 및 기능들에 대한 연구를 일관되게 수행해 왔다.

Ras 암유전자 발현세포에서 암악성화돌연변이 발생기전 규명(J Biol Chem 2002), 활성산소에 의한 암악성화돌연변이 발생원인(Mol Cell 2003), 항암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 유전자 규명(Cancer Res 2004), 암유전자 Ras에 의한 항암제 내성유발 타깃유전자 규명(Cancer Res 2005), 노화과정 중에 암악성화돌연변이 발생 기전규명(Nature Cell Biology, 2005), 암악성화돌연변이 억제인자 규명(J Biol Chem 2009; Oncogene 2010; Nucleic Acids Res 2011; Cancer Res 2015, Oncotarget 2016, 2017, Nature Communications, 2017) 등 암악성화돌연변이 유발원인 및 단백질에 관련한 논문을 30편 이상을 발표하였다.

○ 악성암 치료 연구분야

악성암을 극복하기 위하여, 악성암을 유발하는 인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암악성화 유발 관련연구를 통하여 악성암 억제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내성암 치료 타깃을 발굴하여 국내특허에 등록하였고(제10-1077179호, 2011), 악성암 유발인자(J of Clinical Investigation 2013; Oncogene 2009; Mol Cell Biol 2009), 악성암의 생존 기전(Cell Death Differ 2013; Cell Cycle 2012; Autophagy 2008) 등을 연구하여 지난 5년간 20편 이상의 논문을 해당분야의 학술지에 발표하였고 국내외 학회에서 40회 이상 발표하였다.

○ 산학협동 응용연구

암악성화돌연변이를 이용한 악성암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개연구를 위해 생물신소재학, 바이오신약, 약학, 방사선치료 분야의 대학 그리고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다년간 수행하였다. 본 연구책임자는 방사선에 의한 암세포 치료내성 타깃을 발굴하고 이를 이용한 내성 치료기술을 개발하여 2014년 기술이전(2.5억원) 하였으며, 악성 대장암 진단 마커를 발굴하여 2014년 2.5억의 기술이전을 하였다. 또한 그 연구결과를 SCI급 논문에 12편 게재하였고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15회 이상의 발표를 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조선대 우수업적 교수상, 교육과학기술부 2006년 50대 연구개발 업적, 대한 약리학회 학술상(2002), 보령 암학술상(2005) 등을 수상하는 등 활발하게 연구역량을 키워 오고 있다. 또한 주관연구책임자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약타깃 디스커버리 사업에서 최우수평가(S 등급)를 받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개 대학 교수들과 공동으로 DNA돌연변이 억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과기부로부터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암악성화돌연변이센터(MRC) 지정발전기금 후원문의 ☎062)230-6234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캠퍼스 갤러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경기장 조선대학교 선정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년 7월 12일~8월 11일)와 관련하여, 코넬 마르쿨레스쿠 국제수영연맹(FINA)사무총장과 건축가인 와킨 푸을 시설위원장, FINA 오피셜 파트너인 '밀싸 풀'사의 트레버 티파니 임원 등이 지난 11월 15일부터 3일간 광주를 찾아 주요 경기시설을 둘러봤다.

점검 결과 관심사 중 하나인 하이다이빙의 경우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예정했으나 조선대학교 본관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무등산 조망권을 지닌 조선대 운동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와, 시가지 조망권 등 전망을 고려해 조선대 운동장으로 변경 확정했다. 2019년 5월에는 예선전을 겸한 테스트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

• 하이다이빙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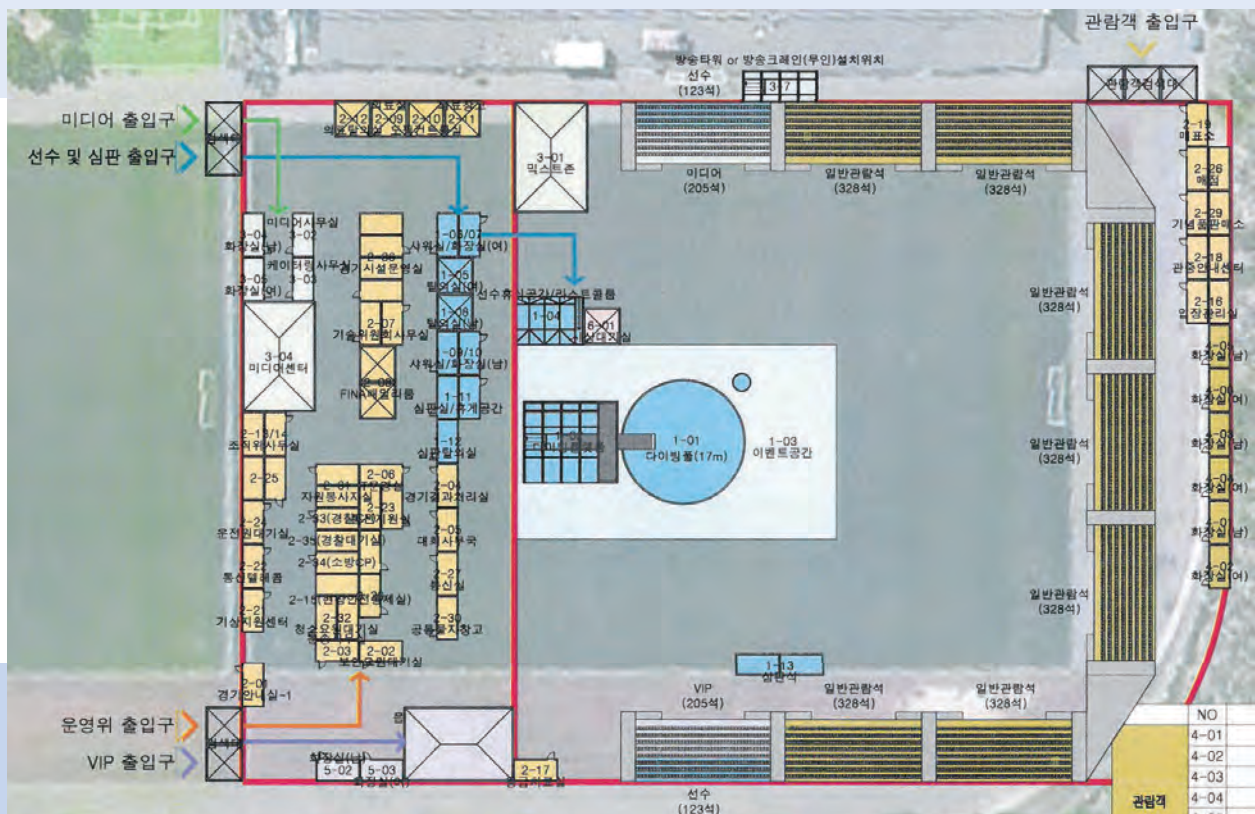
- 절벽이나 높은 바위에서 다이빙하는 것에서 유래
- 높이 기준 : 남자 27m, 여자 20m(만 18세 이상만 출전 가능)
- '13년 제16회 바르셀로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대회
- 최근에는 개최지의 랜드마크에 수조를 설치하여 진행('16 두바이)

• 선정 시 고려사항

- 개최 도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및 역사성·상징성 있는 장소
- 역동성 있는 종목을 감안, 관객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접근성 양호
-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임시품 주변 조형물 지양(동상, 조각상 등)
- 선수 집중도 확보를 위하여 소음 유발 시설 주변 지양
- 하이다이빙 대회 흥행을 고려, 도심에 설치

• 시설기준

- 플랫 폼 : 남자 27m, 여자 20m, 플랫폼(폭 2m, 길이 4m)
- 수심, 수온 : 수심 6m이상(권장 7m 이상) 수온 18℃ 이상 유지
- 구성 요소 : 믹스존(이벤트홀), 관중석, TV컴파운드 등
- 하이다이빙 소요 면적 : 약 4,000㎡
 - 경기 시설 : 400㎡(다이빙풀, 워밍업, 핫터브 등)
 - 방송 공간 : 1,200㎡(믹스존, 기자회견실 등)
 - 관람 공간 : 1,400㎡(VIP관람석, FINA관람석, 일반관람석 등)
 - 기 능 실 : 1,000㎡(탈의실, 사무실, 화장실, 의료실, 도핑실, 사무실 등)



식품영양학과 장해춘 교수 연구팀 천연항균제 기술개발 성공 및 대통령상 수상



식품영양학과 장해춘 교수가 12월 5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0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장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배추 부산물을 활용해 식중독을 제어할 수 있는 미생물 유래 천연항균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 결과 강력한 항균활성의 GRAS* 등급 미생물과 폐배추 등을 활용한 식용 배지에서 천연항균제의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생산된 천연항균물질을 비가열식품/신선 식품/반조리·최소가공식품에 적용함으로써 식중독 제어 및 식품저장 유통기한 연장이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천연 보존제들의 단점인 비싼 가격과 좁은 항균 범위 등을 보완한 새로운 GRAS 등급 미생물 유래 천연항균제를 활용하여 식중독으로부터 취약한 비가열식품 등 다양한 식품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지정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주)가온코리아 ‘2017년 벤처창업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



창업보육센터(이중현 센터장) 입주기업 (주)가온코리아 김도현 대표가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2017년 벤처창업대전’ 창업활성화 창업기업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주)가온코리아는 반도체 PCB 검사장비를 자체개발하여 제조하는 회사로서 제품공정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물류 및 작업내역 추적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외기술을 대체하는 등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국내뿐 아니라 멕시코,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아 금번 벤처창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주)가온코리아는 2013년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센터의 사업화지원 아래 현재 6가지 품목의 자동화 장비 및 비전검사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직원 15명, 연매출 15억원의 법인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금번 대통령상 수상을 통해 김도현 대표는 우수 신기술 창업인으로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추모공간 “기억의 계단” 설치



(사진)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옆 계단에 5·18광주민중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위안부 소녀상 등 아픈 역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스티커 형식의 ‘기억의 계단’이 설치된 가운데 학생들이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7. 11. 29.

조선대학교에 중앙도서관 옆 계단에 5·18민중항쟁과 세월호 참사, 위안부 문제 등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계단’이 조성됐다. 스티커 형태로 계단과 계단 사이의 공간에 부착된 작품은 가로 3.8m, 세로 1.5m 크기이다.

밤하늘을 상징하는 남색 배경에 5·18을 의미하는 택시와 추모탑, 세월호를 추모하는 리본, 촛불, 고래 등이 그림으로 담겨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는 소녀상이 노란 별들 사이에 놓여 있으며 별을 떠받치고 있는 초승달 아래는 시민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여백을 뒀다.

작품 설치하는 지난 8월 ‘기억의 계단’을 기획한 전경훈(광주대), 이지호(조선대) 학생이 설치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보해양조가 후원하면서 이뤄졌다. 디자인업체 바비샤인은 지역 청년과 보해의 협업 프로젝트에 재능기부로 참여했고 조선대학교는 기억의 계단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했다.

2017 CU산학협력EXPO 개최

12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3일간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조선대학교(강동완 총장) '2017CU산학협력 EXPO'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산학협력단(김재수 단장)과 LINC+사업단(최재혁 단장) 주관으로 열린 엑스포는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산학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학·기업·지역사회의 연계성 강화 및 창의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2017 CU산학협력 EXPO' 행사는 ▲대학 내 각 사업단(LINC+, ACE, BK21+ 등) ▲미래사회융합대학 ▲디자인학과 ▲취업학생처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지주주식회사 ▲공학교육혁신센터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 등 기관이 참여하여 산학협력 성과를 전시·홍보하는 자리였다.

이번 '2017 CU산학협력EXPO'는 총 5천여 명이 체육관을 비롯한 각 행사장을 방문하였고 ▲부스운영 ▲우수사례 및 성과물에 대한 시상식 ▲미래 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초청발표 및 세미나 ▲학생성과물 판넬 전시 ▲축하공연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다.





브릿지인재양성사업단

‘제6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2015년 교육기부 대상에 이어 올해 2관왕 기록’



다문화가정,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조력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펼쳐온 조선대학교 호남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브릿지(BRIDGE)인재양성사업단(단장 허유성)이 ‘제6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허유성 브릿지인재양성사업단장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로 12월 14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기부 박람회 및 2017년 제6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호남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교육기부 활동을 시행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에 선정되어 지난해 2014년 7월에 출범한 브릿지인재양성사업단은 ‘배움과 삶, 나눔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온 다양한 교육기부와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그동안 △교육기부대상 △교육기부 우수기관 △교육기부 유공기관 △교육기부

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거나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6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하여 교육기부대상 2관왕을 수상하게 되었다.

브릿지인재양성사업단 허유성 단장(특수교육과 교수)은 “사업단의 중요한 목적인 호남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브릿지 교육전문가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과목 개편과 현장전문가를 연계한 우수프로그램 운영, 나눔과 봉사기반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교사 기획 및 교수설계 역량제고, 브릿지 우수 인재의 진로취업 제고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최첨단 스마트 러닝 및 PBL실 구축 지원 등 학교 안팎에서 소외계층을 조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고 있다”라며, “사업단 창립부터 매년 꾸준히 교과목과 연계하여 봉사동아리, 소외계층 멘토링, 자유학기제 봉사단 운영 등 적극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확산해 온 것이 이번 교육기부 대상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연구원 1.8항쟁 29주년 기념 범하 이돈명 학술대회 개최



민주화운동연구원(김춘환 원장)은 1.8항쟁 29주년 기념 범하 이돈명 학술대회를 11월 14일(화) 오후 2시에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민립조선대학교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월파 서민호 선생을 재조명함으로써 올바른 조선대학교 설립 역사를 정립하고 1.8항쟁을 통해 설립 역사 복원과 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한故이돈명 총장의 원칙과 이상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학자치

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었다.

학술대회는 1부 초청강연회, 2부 학술대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조선대 문석우(러시아어과) 교수 사회로 1부에서는 ‘한반도 위기와 극복과제’에 대한 주제로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실시했다.

2부에서는 먼저 당시 전라남도지사로서 대학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원모집과 회비 모금활동에 지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등 조선대학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월파 서민호 선생에 대하여 ‘민립조선대학 설립을 둘러싼 월파 서민호 선생의 삶과 활동’이라는 주제로 조선대 오수열(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표와 민주화운동연구원 조성식 전임연구원, 순천여고 박병섭 역사교사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바람직한 대학자치의 구현방안과 21세기 조선대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민주주의와 대학자치’라는 주제로 대구대 정국원(법학과, 전 한국헌법학회장) 교수의 발표와 조선대 김종구(법학과) 교수, 기광서(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오송 주몽골대한민국 대사 초청강연회 실시



10월 18일(수) 오후 4시 사회과학대학 1층 강당에서 명사초청 강연회에 오송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를 초청해 한-몽골 관계와 국민외교 활성화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 앞서 오송 대사는 강동완 조선대 총장과 면담하고 몽골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동완 총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게 몽골에 학생들을 보내 해외 문화 체험과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몽골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형태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송 대사는 교류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며, 향후 몽골 유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송 대사는 1985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를 통해 외무부 입부 이후 △주시카고 영사 △주인도1등서기관 △주미국1등서기관 △외무부 정책총괄과장 △국무조정실 외교심의관 △주인도네시아공사참사관 △주캐나다 공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제1회 UIC교수창업추진 포럼 개최



조선대학교(강동완 총장)는 창업 선도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2017년 제1회 조선대학교 UIC(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교수창업추진 포럼”을 10월 30일(월) 조선대학교치과병원 3층 다산실에서 개최했다.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2017학술대회 개최



사범대학부설 교과교육연구소에서는 11월 1일 오후 1시 조선대학교 국제관 2층 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소외집단의 교육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광주전남지역 소외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이 그들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힘을 어떻게 길러주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지원하며 함께 더 나은 삶을 밝혀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 조용환 교수의 기조강연과 ▲제1주제 서덕희(조선대) 교수 ‘지역교육네트워크를 통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삶과 성장에 관한 사례연구’ ▲제2주제 차성현(전남대) 교수 ‘전환학년과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제3주제 전은희(순천제일대) 교수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고교교육 경험에 대한 이해:전남지역 전문대생들을 중심으로’ ▲제4주제 임경환(조선대) 교수 ‘홈스쿨러들의 어른되기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등 주제발표, 그리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 할랄교육과정 수료식 및 장학금 시상식



“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교육책임자 한상옥)”는 지난 9월 8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시행하는 ‘2017 할랄 교육과정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9월 22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GLOBAL KOREA 농수산물식품 수출시장(할랄시장) 개척단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1월 10일 50명에게 교육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또한 할랄시장 탐방계획서 우수 발표자 9명에게는 (주)동아에스텍(대표 이사 한상원)으로부터 산학협력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이번 할랄 교육과정은 농수산물식품 수출 시장개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이슬람 문화의 이해, 할랄/코셔 시장의 이해, 할랄/코셔 인증기관(KMF)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할랄/코셔 시장 진입 도모 및 농수산물식품 수출 다변화 확대, 청년취업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이다.

조선라이프 아카데미

‘조선라이프 아카데미’는 동원육영재단이 지원하는 전인(全人) 프로젝트, 즉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밝고 다른 분야에는 어두운 인재가 아닌, 소위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과적 사유와 이과적 발상을 겸비한 인재, 학문의 머리와 예술의 가슴을 함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다. 조선라이프 아카데미는 인문과학에 중심에 두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예술분야까지 파생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소위 전인(全人)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악 창의 프로그램 ‘조금 서투른 우리들의 시작’ 공연

조선라이프 아카데미 음악창의프로그램 ‘조금 서투른 우리들의 시작’ 공연을 11월 11일 오후 7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6층 연주홀에서 개최했다.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교육센터 주최, 조선라이프 아카데미 음악창의 프로그램 주관, 동원그룹 동원육영재단과 조선대학교 ACE사업단 후원으로 개최된 공연은 조선라이프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비전공 분야인 음악을 반 년 동안 배워 준비한 음악회이다. 전문 음악인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닌 그 동안의 교육과 학습의 연장으로 운영되어 왔던 프로그램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조금 서투른 우리들의 시작’ 공연은 지난 3월부터 여름방학을 거쳐 매주 토요일 5시간씩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연주를 한 결과물이다.





조선라이프 아카데미 1기 수료식 개최

12월 9일 오전10시 조선대 본관에서 제1기 조선라이프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년간 과정을 수료한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료식에서 강동완 총장은 라이프아카데미의 정신인 '전인'적 인재로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 훌륭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선대 본관건물이 백학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무등산을 배경으로 웅비하는 학이 되어 달라며 격려했다.

신형철 책임교수는 "조선라이프 아카데미는 '스펙'을 강조하며 청년들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해진 천박한 사회에서 학생들이 좋은 제품이 아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라며 프로그램의 가치와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2018년에 진행될 2기 조선라이프 아카데미는 사회과학대 지병근 교수(정치외교학과)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5기 어린이 해부학자 모임’ 개최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주임교수 정윤영)에서는 지난 10월 28일(토)에 굿네이버스 광주 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제 5기 어린이 해부학자 모임>을 개최했다.

‘어린이 해부학자 모임’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실험용 흰쥐 해부’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실험을 통해 교육받기 어려운 과정을 지역사회 공동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순수한 재능 기부 봉사활동이다.

해부학교실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변화시킬 것인가를 모색하던 중 2012년 8월 광주 지역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제1기 어린이 해부학자 모임>을 기획하여 교육하였다. 1기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힘입어 매년 해부학교실 교수들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2013년에는 굿네이버스 광주 동부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2기 어린이 해부학자 모임을 개최한 이후 올해 <제5기 어린이 해부학자 모임>을 개최하였다.

<제5기 어린이 해부학자 모임> 참여자는 다양한 꿈을 가진 굿네이버스 광주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12명으로 3인 1조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자기 몸의 구조에 대해 통찰할 수 있도록 흰쥐 해부를 통해 이를 인체와 비교해 보게 하였다.

조선대학교 우리철학연구소, 한국유교학회,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공동으로 2017 추계학술대회 개최



조선대학교 우리철학연구소(이철승 소장)는 ‘4차 산업혁명과 유학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11월 10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이주현관에서 한국유교학회(이철승 회장),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철승 회장 개회사 ▲강동완 조선대 총장 축사 ▲원용준(충북대) 교수, 길훈섭(성균관대) 교수의 ‘성·두뇌 시스템의 윤리 모듈·성리학의 도덕 본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김재경(조선대) 교수의 ‘공자의 사유방식과 창의성의 관계’ ▲유권중(중앙대) 교수의 ‘초연결사회와 유교적 진실의 재구성’ ▲진성수(전북대) 교수의 ‘대학 교양교육으로 본 유학 교육’ 등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선대 박물관 주관,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조선대학교 박물관(이기길 관장)에서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77회 추계학술 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100여 개의 대학박물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대학박물관협회는 1961년에 설립된 이래 해마다 학술대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기관지인 고문화(古文化)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유적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이를 대학과 지역사회에 알리는 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조선

대학교 박물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아 주관한 이번 학술발표회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대학박물관'이란 주제로 대학박물관의 역할과 나아갈 바를 논의했다.

하나금융나눔재단 하나장학생 장학증서 전달



11월 6일 오후 2시 총장실에서 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 지원하는 '2017 하나장학생' 장학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강동원 총장과 이인화 취업학생처장, 하나은행 고봉인 광주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학증서 전달식에서는 금년도 하나장학생으로 선발된 ▲강우정(국어국문학과 2) ▲이병조(아랍어과 1) ▲장미랑(정치외교학과 1) 등 3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원자력공학과(계약학과) 공로자 감사패 전달



계약학과인 원자력공학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11월 27일(월) 오후 5시 한국수력원자력(주)한빛본부 내 교육훈련센터에서 양창호 본부장과 강장두 교육훈련센터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선대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한전KPS(주)와 계약학과(원자력공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6학년도부터 학과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취업학생처 ‘총장님과 함께하는 Bread & Milk day’ 행사 개최



들의 취업과 장학금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취업학생처(이인화 처장)에서는 11월 28일(화) 오전 8시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빵과 따뜻한 커피, 핫팩 등을 나누어 주며 취업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펼친 ‘총장님과 함께하는 bread & milk day’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강동완 총장을 비롯하여 취업학생처 소속의 취업전략팀, 취업경력개발팀, 대학일자리센터, 장학팀, 그리고 LINC+사업단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된 행사로 ▲ 취업성공을 위한 학년별 로드맵 ▲ 나만의 경쟁력 있는 취업준비 ▲ 대학일자리센터 안내 ▲ 학생 맞춤형 장학금 프로그램 안내 등 학생

2017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취업학생처(이인화 처장)는 ACE사업(홍성금 단장)의 일환으로 연말을 맞아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11월 28일 오후 2시 서석홀 4층에서 진행했다.

지역민과 재학생, 교직원들이 함께 김장을 하여 광주지역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는 이 행사는 학생들이 배려와 봉사를 체험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함께’형 문화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5kg씩 포장된 김장 김치 210박스를 동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동구 관내 홀몸 어르신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성환 동구청장이 직접 참석하였다.

이번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는 강동완 총장, 김성환 동구청장,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동구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조선대학교 후원 제3회 영호남 교류음악회 개최



조선대학교 후원으로 광주거점학교 연합 오케스트라와 경북거점연합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제3회 영호남교류음악회가 11월 24일(금) 오후 3시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동서양의 하모니’라는 부제로 개최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로 조선대학교 법인 산하 학교인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김종익 교장)를 중심으로 한 광주거점연합오케스트라(지도교사 김정희)와 하양여자중학교(이창훈 교장) 중심의 경북거점연합오케스트라(지도교사 정동진), 송광중학교(안현순 교장) 국악오케스트라(지도교사 박숙혜)가 함께 한 공연이다.

영호남 교류음악회는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가 교육부 예술거점학교에 선정된 후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음악적 경험을 통해 표현력과 창의성 개발하고, 예술적 감수성 및 잠재력을 키워주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조선대학교가 지원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이번 공연에는 관현악 합주, 국악관현악 합주, 판소리, 난타, 중창 등 다양한 레파토리의 공연이 펼쳐졌다.

아시아공동체연구센터 주관

아시아공동체론 강좌 수료식 및 산학협력 장학금 시상식 개최



조선대학교가 일본 원아시아재단(이사장 사토 요지)의 후원을 받아 2017학년도 2학기에 개설한 아시아공동체론강좌(담당교수 한상옥)의 교육 수료식과 동아에스텍(주)(대표이사 한상원)의 산학협력 장학금 수여식이 12월 4일 오전 11시 경상대학 경영산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강좌에 참여한 34개 학과 94명을 대상으로 제3회 “Together Asia, Asian Community” 주제로 논문 및 컬럼 발표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논문발표에 안순섭(경영학부 4년)의 4명, 컬럼 발표에 김지수

(경영학부 4년)의 4명에게 총장 상장과 동아에스텍(주)의 산학협력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제15회 영호남 4개 대학 교직원 체육대회 성료

제15회 영호남 4개 대학 교직원 체육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하나, 동행, 나눔 슬로건으로 '우정과 화합'의 자리 연출

'재미(fun)+기부(donation)'가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로 호평

영호남 대학 간 교류와 상생 발전을 위한 제15회 영호남 4개 대학(조선대, 영남대, 원광대, 동아대) 교직원 체육대회가 11월 11일 조선대학교 체육관 및 캠퍼스 일원에서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영호남 4개 대학 교직원 체육대회'는 해마다 대학별로 순회하며 열리는 행사로 노동조합의 주관으로 교직원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우정을 나누는 자리이다. 올해는 조선대학교에서 '하나, 동행, 나눔'을 슬로건으로 개최되어 오전에 명랑운동회를 시작으로 점심 식사 후 이벤트(캠퍼스) 투어, 행복나눔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교수들은 '교수테니스대회'를 별도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15회 체육대회는 기존의 '먹고 즐기는' 참가자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4개 대학 소재 지역별로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는 나눔의 행사도 병행되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소위 '재미(fun)'와 '기부(donation)'를 합친 '퍼네이션(funation)'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직원노동조합 최철(조선대)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상수(영남대) 위원장, 안순오(원광대) 위원장, 박녕쿨(동아대) 지부장과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값진 땀의 결실이 해당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조선대학교 최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풍족한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사람이 많다”라며 “오늘 영호남 4개 대학 직원노동조합이 각 지역의 이웃과 함께 하는 선택이 우정을 넘어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번 대회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영호남 4개 대학 체육대회는 내년 제16회 체육대회 개최대학인 원광대학교에 대회기를 전달함으로써 내년 대회를 기약하며 우정과 화합의 무대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제7회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어울림 한마당 개최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이승권 원장)과 한국이민재단(우기봉 이사장) 주최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한국어 말하기와 다문화 예술을 발표하는 '제7회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12월 12일 오후 1시30분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 대호전기홀에서 개최되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힌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서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 참여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어울림 한마

당은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광주 2거점) 한국이민재단(중앙거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법무부, 광주·전주·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남부대학교(광주 1거점), 목포대학교(전남 1거점)와 광주 서구·남구·북구·광산구·화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후원과 협조로 진행되었다.

2017 TRIZ 창의문제해결을 위한 실용트리즈 경진대회 개최

취업학생처(이인화 처장)와 ACE사업단(홍성금 단장)은 11월 15일(수) '2017 TRIZ 창의문제해결을 위한 실용트리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트리즈(TRIZ: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는 발명문제해결이론으로 발명특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제해결방법론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조적인 문제해결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인 TRIZ를 활용하여 창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TRIZ를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 활성화와 취업률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진 대회에 앞서 지난 11월 2일 장재훈 교수와 부기철 교수의 트리즈 관련 특강이 이루어졌으며, 경진대회에는 총 16개 팀이 참가하여 10개 팀을 선정해 15일 시상했다.



의과대학 김삼철 교수 국제저널 편집위원 선정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및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웰빙통합의학클리닉 김삼철 교수가 의학의 전반적인 최신연구와 전세계 지역사회 의료혁신을 목적으로 한 ESCI와 SCOPUS등재 국제학술지인 “Australasian Medical Journal(AMJ)”의 편집위원에 선정되었다.

김 교수는 한편 △국외 통합임상의학 학술지인 “Integrative Clinical Medicine(ICM)”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편집장 △전통 임상자연의학을 연구하는 “Journal of Traditional Medicine & Clinical Naturopathy” 편집위원 △가정의학 일차의료연구지 “Family Medicine Current Research”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진료의 통합의학적 접근 필요성을 느껴 임상에 적용하고 있으며 △메이요클리닉 완화의학/가정의학 △노스다코타 주립의대 통합의학/가정의학 연수 △아주대의료원/서남의대 교원을 거쳐 2015년부터 조선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재직하면서 웰빙통합의학클리닉을 광주, 전남 최초로 개설하여 진료중이며 통합적 진료 및 연구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독일어문화학과 박대환 교수 한국-탄자니아 친선협회 초대회장 선임



독일어문화학과 박대환 교수가 한국-탄자니아 간 민간교류 및 기업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한국-탄자니아 친선협회’ 초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허브국가로서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정치·외교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사하라 이남(Sub-Saharan)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7%(퍼센트)대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천연가스, 다양한 광물자원, 풍부한 풍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양을 접하고 있어 동아프리카 및 주변 내륙 국가들의 수출입 통로이기도 하다.

박대환 교수는 다양한 경험과 탄자니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살려 우리나라 최초로 탄자니아 민간 단체인 ‘한국-탄자니아 친선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친선협회는 오는 2018년 2월 경 탄자니아를 첫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교육, 문화, 기업 차원의 ‘민간외교’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독일어문화학과 신원경 초빙교수 한국독일언어문학회 올해의 학술상 수상



독일어문화학과 신원경 초빙교수 교수는 2017년 10월 20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독일언어문학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학술상’을 수상했다.

신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독일언어문학 제71집’에 기고한 논문 “빔 벤더스의 <베를린 천사의 시>분석 -들뢰즈의 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가 학계의 참신한 연구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미술대학 조운성 교수(회화학과) 개인전 개최

미술대학 회화학과 조운성 교수는 2017년 낭만이 넘치는 계절을 맞이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갤러리 봄'에서 '조운성 개인전 - Happy Energy'를 개최했다.



법과대학 김종구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법과대학(김재형 학장) 법학과 김종구 교수가 10월 24일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김종구 교수는 지난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여름까지 미국 버클리대(UC Berkeley) 로스쿨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하는 틈틈이 로스쿨 수업에 참여하는 등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조선대학교 법대는 김종구 교수를 비롯하여 김기영 교수(미국 변호사)와 보하니안 교수(미국 변호사) 등 세 명의 미국 변호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법과대학은 이들 세 명의 교수 외에도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윤일홍 교수와 이훈 교수 등 영미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수진을 갖추게 되어,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산학협력팀 조성진(직원)

교육부 산학협력유공자 선정, 교육부 장관상 수상



산학협력팀의 조성진 팀원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한 '2017년 산학협력 유공자'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 유공자를 발굴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다. 조성진 팀원은 2011년부터 조선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통합연구관리시스템 도입, 정보공시 및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관리, 산학협력단 자회사 재정 건전성 강화 등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대외협력교수 임명



조선대학교(강동완 총장)는 국책사업, 대외 재정사업, 국제·국내 행사 유치 및 홍보 등 조선대학교 대외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3일자로 문진석 (주)세창이엔텍 대표이사, 조성철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박대우 (사)지역발전정책연구원 원장 등 3명을 대외협력외래교수로 각각 임명했다.

무역학과 박노경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경상대학 무역학과 박노경 교수가 충남 서산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 주관한 『서산 대산항 국제포럼』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박 교수가 이번 국제포럼에서 수상한 논문은 ‘인공신경망모형(다층퍼셉트론, 방사형기저함수), 사회연결망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한 한·중 컨테이너 터미널의 클러스터링 측정 및 교차효율성 메트릭스를 이용한 검증: 서산대산항 클러스터링 포함’이다.

박노경 교수는 조선대를 거쳐 한양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78년부터 조선대에 몸담고 있다. 경상대학장, 지식경영연구원장, 한국항만경제학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한국산업경제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무역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의학과 고재웅 교수 ‘태준 최다피인용 KJO논문공로상’을 수상



의과대학 의학과 안과학교실 고재웅 교수가 최근 서울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된 ‘제118회 대한안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태준 최다피인용 KJO논문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안과학회는 고재웅 교수가 최근 2년간 KJO(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에 게재한 논문이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 KJO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

한편, 고재웅 교수는 4월 논문 저술과 학회발표 등의 활발한 연구 활동성적을 인정받아 최근 ‘마르퀴즈 후즈 후 2017 평생공로상’도 수상하였다. 또한 ‘제114회 대한안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엘러간 학술연구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도 대한안과학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

무역학과 이종하 교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무역학과 이종하 교수가 '2017년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종하 교수는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조선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방세 및 지방 재정 관련 학술활동으로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한국지방세학회 총무이사로서 지방세의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지방세 콜로키움 운영위원으로서 지방세 이론 정립 등 학문 발전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였다.

상담심리학과 오지현 교수 '아동학 신진 논문상' 수상



상담심리학과 오지현 교수가 지난 11월 4일 열린 '2017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아동학 신진 논문상'을 수상했다.

아동학 신진 논문상은 1년 동안 [아동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90여 편 중 우수한 논문 1편에만 수여되는 상이다. 오지현 교수는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 사회적 지지와 감정코칭 반응이 아동의 정서조절방식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아동학회는 아동학 분야 최초의 학회로서 1979년 창립 이래 현재 까지 38년의 역사를 지닌 학회이다. 아동학회지는 아동학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지로 성장해 왔으며, 2017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과학기술분과의 수많은 학술 지 중 18종만 포함된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컴퓨터통계학과 배상현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자연과학대학 컴퓨터통계학과 배상현 교수는 '2017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는 2008년 3월 설립되어 정회원 2,000여 명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전자, 통신, 기술 관련 분야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학회이다.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는 4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중 5편을 선정하여 우수 논문상을 수여하였다.

배상현 교수의 "스마트그리드 기반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계"라는 수상 논문은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IoT를 기반으로 스마트그리드와 U-헬스케어 시스템을 융합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이용자의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체온, 맥박, 혈압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와 U-헬스시스템을 동시에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배상현 교수는 조선대학교 학사·석사, 도쿄 메트로폴리탄 대학 공학박사를 마치고 1988년부터 조선대학교에서 재직하면서 ▲대외협력부장 ▲자연과학대학장 ▲인력관리본부장 ▲인사혁신처장 등을 역임했다.

컴퓨터공학과 신석주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컴퓨터공학과 신석주 교수 연구팀이 한국통신학회 주관 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인 “BEST PAPER AWARD”를 수상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한국통신학회 하계학술대회는 920편의 논문 발표와 1,200여명이 참석한 통신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행사로 엄격한 논문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논문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11월 11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거행되었다.

신석주 교수와 인도 출신의 박사과정 님곰밤데브라니데비 학생이 발표한 ‘Radio Resource Allocation and Power Control Scheme for Device-to-Device Communication in LTE-A Cellular Networks’ 논문은 LTE-A 기반의 이동통신망과 단말 간 직접 통신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무선 자원 할당과 전력 제어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성능을 모의 실험을 통해 분석한 것으로 기존의 방식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문방송학과 김봉철 교수 한국광고 PR실학회 회장 취임



신문방송학과 김봉철 교수가 지난 12월2일 개최된 한국광고PR실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7대 한국광고PR실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한국광고PR실학회는 광고 및 PR을 전공하는 학자와 현업 실무자들이 중심이 된 전국 규모의 학회로 회원 수가 약 500명 정도이다. 한국광고PR실학회는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키는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학회로 등재 학술지인 ‘광고PR실학연구’도 발간한다.

김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을 거쳐 2004년부터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한국광고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한국PR학회 부회장, 조선신문사 주간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무역학과 이제홍 교수 (사)국제e-비즈니스학회 제19대 회장 취임



이제홍 교수(무역학과)는 2017년 12월 2일(토)에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사)국제e-비즈니스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2018년도 (사)국제e-비즈니스학회 제19대 회장에 취임했다.

(사)국제e-비즈니스학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날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e-비즈니스 분야의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술 및 사회적 발전과 e-비즈니스 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학회이다. 전자무역, 글로벌 전자상거래, IoT 비즈니스, IT 융합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여하는 전문가 회원 2천여 명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e-비즈니스 연구’ 학회지를 연 6회 발행하고 있다.

기계공학과 조흥현 교수 Best Paper Award in 2017 상 수상

(사)대한설비공학회 동계학술회의 IJACR Best Paper Award in 2017 수상

- 신재생에너지 연구실 함정균(기계공학과, 박사과정) 우수논문상 수상 및
이민정(기계공학과, 학부4) 최상홍 인재 학술상 수상



조흥현 교수(기계공학과)가 지난 11월 2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사)대한설비공학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IJACR Best Paper Award in 2017을 수상했다. IJACR Best Paper Award in 2017은 설비공학회에서 운영하는 국제저널인 IJACR에서 2017년 동안 제출한 논문 중 학문적으로 우수하고 설비분야에 기여도가 높은 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학술상이다.

조흥현 교수는 고려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삼성전자 가전연구소 및 미국의 NIST(미국국립표준연구소)를 거쳐 2008년부터 조선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2014년에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올해의 신진교수상을 받았으며, 2015년에 ASHRAE(미국냉동공조협회)로부터 최우수논문상(Best Paper Award) 수상, 2016년에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최상홍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꾸준한 연구 활동과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태양열기반 계간축열시스템 최적화 기술 인력 양성 사업단’을 운영하여 국내의 에너지 전문가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조흥현 교수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실험실의 함정균(기계공학과 박사과정)은 (사)대한설비공학회 2017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CuO, MWCNT 나노유체를 적용한 다양한 집열기의 성능 해석’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받았으며 이민정(기계공학과 학부4학년)은 최상홍 인재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연구실의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도 크게 인정받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설비공학회는 1971년 창립되어 건축물의 주거 쾌적성과 산업시설의 제품 생산 환경을 전문분야로 하는 공학회로 기계공학 및 건축공학이 함께 운영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학회 중 하나이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와 밀접히 연관돼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8,000명 이상의 산·학·연·관계의 개인회원과 400여 곳 이상의 단체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국내학술지 평가에서 A등급 판정을 받는 등 우리나라 설비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문의 (062)230-7769

프랑스어학과 이승권 교수 2018년도 한국프랑스학회 회장 취임



프랑스어과 이승권교수가 2018년도 한국프랑스학회 회장으로 피선되어 1년간 한국프랑스학회를 이끈다. 이승권 교수는 2018년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부회장에도 피선되어 문화 교류 확대에 나선다.

미술대학 박일재 교수 제27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순천만 국제미술제 심볼’ 디자인으로 “최우수 아이덴티티 디자인 대상”
“개인 자격으로는 시상식 사상 최초로 수상하는 영광”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박일재 교수가 ‘순천만 국제미술제 심볼’ 디자인 작품으로 12월 6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7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아이덴티티 디자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30여 개의 기관과 단체가 후원하는 상이다.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 기관, 단체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과 관련 매체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디자인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분야에

서 크게 노력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은 사보, 방송, 웹사이트, 홍보물, 광고 및 공익 캠페인, 블로그 등 다양한 부문을 총망라하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국내 최고 권위의 행사이다.

토목공학과 박정웅 교수 대한용접접합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공과대학 박정웅 교수(토목공학과)가 공동연구자인 선박해양공학과 안규백 교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성자희열본부 우완측 박사와 함께 지난 11월 30일 대한용접접합학회로부터 기계분야 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용접접합학회는 1982년 설립되어 현재 회원 수가 약 2,000명이 되는 한국의 모든 용접 및 접합관련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매년 기계분야 논문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 논문 1편을 선정한다.

이번 논문상을 수상한 “극후물재 용접부 내부잔류응력 측정기술 및 특성”의 성과는 지금까지는 용접강구조물 표면의 잔류응력만 측정할 수 있었으나, 국내 최초로 고유변형도 방법을 적용하여 표면

뿐 아니라 내부의 잔류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초대형 선박에 적용되는 고강도 극후물재 용접부의 불안전파괴 안전성 평가에 이미 적용되었고, 일본 등 외국에서는 내지진 설계기준 정립에 용접잔류응력을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실제 구조물에 적용되고 있다. 연구 성과는 향후 국내의 용접잔류응력의 평가 및 적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도서관 문화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2017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평가’ 우수도서관 선정

“전국대학도서관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이계만 관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2017년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 평가에서 전국대학도서관 중 유일하게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403개 사업 참여 도서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2개 도서관이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올해 4월 “로드 인 광주(Road in Gwangju) : 광주의 시간을 따라 걷다”라는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자유학기제 연계형 부문에 선정되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조선대학교 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의향·예향의 도시로 알려진 광주(光州)에 서려 있는 인문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봄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다가올 미래가 갖는 인문학적 의미를 사유하고 준비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명칭처럼 학교와 현장(무등산,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강의와 체험에 독서와 토론을 접목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인문학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시상식은 11월 29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되었다.

2017 ACE협의회 호남권역 4개 대학 연합 독서토론대회 성료

조선대학교 '결혼의 발견'팀 대상

중앙도서관(이계만 관장)은 호남권역 4개 대학연합 독서토론대회를 11월 25일 결승전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조선대와 동신대, 순천대, 전북대 등 호남권역에서 ACE사업(홍성금 단장)을 추진하는 호남권역 4개 대학이 ACE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 연합하여 개최한 올해 독서토론대회는 '결혼, 합리적인 선택인가?'라는 주제로 4: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16개 팀이 본선에 진출, 찬반 양 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 경기마다 열린 토론의 장이 연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요즘 대학생들의 결혼관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또 문학평론가 신형철 교수가 진행한 북토크와 결혼 관련 추천 영화 상영, 토론교육 등 다채로운 사전 행사도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독서토론대회 대상은 조선대학교 구지훈(신문방송학과), 조송희(법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결혼의 발견'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결혼의 발견'팀은 "양보와 배려, 희생이 동반되는 결혼을 이론이나 이치에의 합당함에 건주어서는 안된다. 결혼은 합리적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느냐고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쳐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부상으로 상금 백만 원을 수상했다.

중앙도서관 ACE사업

‘함께형 Book릴레이’ 행사로 ‘북좌담회’ 개최

중앙도서관(이계만 관장)에서는 11월 29일 오후3시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ACE사업(홍성금 단장) ‘함께형 Book릴레이’ 프로그램인 ‘북좌담회’를 개최했다.

‘함께형 Book릴레이’는 선정된 한 권<청춘심리상담:김태형 저>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시대에 책을 매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에 열린 ‘북좌담회’는 정가온 대표(R.Changer 대표)의 진행으로 김택호(상담심리학과 교수), 황현서(교원인사팀 직원), 원동언(전기공학과 4년 학생), 임한결(무역학과 2년 학생) 4명의 대표 패널이 참가했다.



좌담은 청중들이 책이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주제에 관한 고민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고 진행자가 이를 선택하여 읽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패널들과 고민해결을 위한 대화를 자유롭게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책의 내용과 교수, 직원, 학생으로 분류되는 각 단위 대표들의 생각이 청중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청중들과도 즉석 질문 대화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좌담회로 진행되었다.

홍성금 ACE 사업단장 ACE 사업 마지막 해를 마감하며



안녕하세요.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인 ACE+사업의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해가며 지난 4년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총장님과 교내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사업에 선정된 이래 ‘함께형 문화인재 양성’을 목표로 3C핵심역량(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의 기반아래 ‘깊게 가르치고 넓게 보살피자’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0여 개의 부서들과 프로그램 기획, 성과점검 그리고 환류 등의 발전지향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참여도 및 핵심역량 증가, 교수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원, 그리고 타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교가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대학 ACE+사업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학들에게 확산하여 프로그램을 공동 수행함으로써 상호대학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내적인 우리 대학의 ACE+사업 수행성과로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잘 가르치는 대학’의 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평생 직업교육 수요증가 등의 교육환경변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개발된 학생중심의 내실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지원은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오고 싶어하는 대학으로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가장 최적의 방법들 중의 하나임을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대학으로서 더 크게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CE+사업단장 홍성금 배상

성과확산을 위한 연속 심포지엄 개최

● 2017 ACE-CTL 심포지엄 개최



조선대학교(강동완 총장)는 오는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제관 세미나실에서 ‘대학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CTL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7 ACE-CTL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수학습지원센터와 ACE사업단의 주최로 대학교육의 발전과 정보교류를 위해 각 대학 간 사례공유와 확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특히 학생 참여 강화를 위한 접근뿐만 아니라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각 대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각

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CTL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 'CU-PBL WEEK' 세미나



대학의 창의적 및 문제해결형(PBL) 전공수업 소개를 위한 'CU-PBL WEEK 세미나'를 11월 3일(금) 오후 2시 조선대학교 국제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ACE사업단과 학사운영팀의 주최·주관으로 열린 세미나는 조선대학교에서 2016, 2017학년도에 개발되고 2017학년도 2학기에 운영 중인 우수 PBL 교과목의 사례와 실제로 PBL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여대 교수학습센터 서윤경 교수의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조선대학교 송윤아(무역학과) 교수 ▲정성배(행정복지학부) 교수 ▲이원상(법학과) 교수 등의 PBL 과목 발표에 이어 PBL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2017학년도 1학기 PBL-STUDY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된 '반딧불이' 팀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 전국대학 학생상담지도 활성화 심포지엄Ⅲ



취업학생처(이인화 처장) 원스톱학생상담센터(김택호 센터장)에서는 지난 11월 10일(금) 서석홀과 국제관에서 전국 대학 학생상담센터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상담·지도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전국대학 학생상담지도 활성화 심포지엄은 '효과적인 학생상담·지도시스템과 다양한 프로그램 공유'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전국 대학 학생상담센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대학2주기평가와 학생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과적인 학생상

담·지도시스템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개회식과 용인대 박제일 교수의 '대학 2주기 평가와 학생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의 기초강연이 있었고, 2부는 2개의 트랙(track)으로 나뉘어 '효율적 학생상담시스템 개선 및 기능강화' '학생상담지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효과성 제고'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각각 진행되었다.

● 2017 교양교육 성과확산 심포지엄



기초교육대학(조동렬 학장)에서는 지난 11월 17일(금) 경상대학 경영산학관에서 '2017 교양교육 성과확산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대학 교양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기초교양교육원 윤우섭 원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인성, 융합, 기초교육이라는 3가지 발표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조선대학교 ACE사업의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각 대학의 교양 관련 교원들과 교양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학사멘토 교육훈련



학사멘토 프로그램은 1, 2학년들에게 교육과정이나 학사제도 등을 안내하고 학교생활을 도와주어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진로설계를 미리 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프로그램의 취지 소개와 멘티와 상담하는 법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상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차 교육 시 전문 상담 인력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처럼 좋은 멘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멘티의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조

사에서 매 학기 4.5점(5점 만점) 이상 나오고 있다. 학사운영팀에서는 이 외에도 중도 탈락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공설명회와 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후배문화공동체(HOT)

함께형 문화인재를 목표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선후배문화공동체(HOT)가 있다. 선후배간 소통을 늘리고 지역 문화콘텐츠의 활성화, 학업정보 공유 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매 학기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35개팀 187명이 참여했다. 더 발전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 지역민과 함께하며 소통할 수 있는 Co-HOT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였다. 활동 기록을 블로그에 글로 남겨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교수학습개발팀에서는 함께형 문화인재를 목표로 SOS, Co-SOS가 진행되었다. 또한 교수들의 함께하는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소화제, 교수 멘토링도 실시하고 있다.



광주빛고을시티투어버스는 성인이 3,000원입니다.
이 티켓을 사면 쌀 가격으로 하루종일 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살면서 시티투어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됐습니다.^^



시티투어 다음 방문장소는 광주호수생태원입니다.
광주호는 인공호수로,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면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자연 생태계의 생물들을 관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공간입니다.

(히사시부리팀 보고서 내용)

기숙사RC Career Coaching 나침반 프로그램



도움이 되도록 다방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RC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기숙사 RC Career Coaching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학문적, 직업적 진로 탐색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취업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된다. 저학년에게는 진로와 취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대학생활에 대한 설계를 지원해주고, 고학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진로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심리상담도 병행하게 된다. 취업에

CU Planner 컨설팅, 경진대회

원스톱학생상담센터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취업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CU Planner 컨설팅은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찾아내서 도움이 되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로 목표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CU Planner 경진대회는 자기가 설정한 목표와 진행과정을 서로 비교해보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원스톱학생상담센터에서는 성적경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콘플러를 진행중에 있으며, 성적경고를 받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오르락’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함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ACE사업단 3C핵심역량, 과제집중시간 홍보



ACE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3C 핵심역량을 측정하면 추후 CU-SP에서 측정하였던 역량을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해야 될 부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30일 중앙도서관에서는 3C핵심역량과 과제집중시간 홍보가 진행되었다. 수업평가에 앞서 3C핵심역량이 어떤 의미인지, 측정 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였다.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최재혁 단장)은 지역사회기반 4차 산업 핵심역량강화와 미래산업·사회·문화를 선도할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해 산학협력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형 융·복합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7 산학협력 엑스포 참여

LINC+ 사업단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2017 산학협력EXPO’에 참여했다.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2017 산학협력EXPO’는 전국의 산학협력 고도화형 55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LINC+사업 우수성과 공유 및 확산을 통해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우수인재와 우수기업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대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를 전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LINC+사업단은 행사장에서 사업단 소개 부스를 운영하였고 아울러 대학 재학시절 캡스톤디자인 과정을 통해 구상한 아이템을 실제로 사업화한 가족회사 ‘리플’과 캡스톤디자인 옥션마켓에 ‘데일리 한복’ 팀이 참여하여 관람객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가족회사 ‘리플’은 대학 재학중 LINC+사업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놀이를 결합한 유아 목욕 용품’ 아이টে을 개발한 후 ‘후습’ 이라는 제품으로 상품화를 성공시켰던 우수사례를 전시하였다. ‘리플’은 창업 후 조선대학교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LINC+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실습생 배출,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 프로그램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 산학협력 공동 세미나’ 개최

11월 20일 라마다 광주호텔에서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와 공동으로 ‘2017 산학협력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노비즈인들과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산학협력 고도화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대학과 기업간 협력방안 증진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이노비즈협회에서는 조선대학교 UIC 특성화 트랙 우수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영호남 4개 대학 포럼 및 상호협력 협약 체결

11월 14일에 영남대학교에서 영호남 4개 대학(조선대학교, 동아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이 모여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포럼 참석 및 상호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각 대학 LINC+사업단이 보유한 우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대학의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을 공유 및 타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내용과 향후 연차별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상호 협력 협약(MOU)을 통해 각 LINC+사업단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혁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제반 사업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맺기로 하였다.



사업실적 발표 및 협력기관 교류회 개최



12월 6일(수) 광주 라마다 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SW중심대학 1차년도 사업실적 발표 및 협력기관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를 더욱 공고히 해 성공적인 SW중심대학사업의 산학협력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SW융합원 산학협력센터장 신석주 교수의 'SW중심대학 1차년도 사업성과 발표 및 산학협력 시스템 소개' ▲한국전력거래소 김용완 전 본부장의 '전력시장과 ICT' 초청강연 ▲분과별 산학협력 토론 등이 진행됐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SW융합교육원은 11월 27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오창렬 원장)과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에서 'ICT·SW융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실무형 ICT·SW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약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ICT·SW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 공동협력 ▲ICT·SW융합 인식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및 정보교환 ▲

ICT·SW융합 관련분야의 공동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ICT·SW융합 관련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자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 용접·접합과학공학과 용접공정 및 설계 연구실 탐방 ●

불이 꺼지지 않는 용접공정 및 설계 연구실, 글로벌화에 앞장서다!

용접공정 및 설계 연구실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뿌리)기술인 용접·접합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가 인증하는 공인 국제 용접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신설된 용접·접합과학공학과와 연구실로서, 국내 용접학 여성박사 1호이자 뿌리산업 발전유공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표창 받은 바 있는 방희선 교수가 이끌고 있다.

용접·접합과학공학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성화하여 육성하고 있는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 대학원 과정’에 선정돼 5년 동안 국고 30억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뿌리산업의 외국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외국인

뿌리기술인력 양성대학, 학부과정’에도 선정되어 유학생들이 졸업 후 고급 취업비자 E-7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용접공정 및 설계 연구실은 60억 원 상당의 최첨단 용접·접합장비가 구축되어 용접공정에서부터 설계, 품질평가까지 용접의 전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연구실로서, 현재 40여 명의 석·박사 학생들과 연구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 및 산업체들과 MOU 체결 및 다양한 프로젝트(포스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차량, 롤레오 공과대학 등)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고 시설/장비

- 용접공정에서 품질평가, 설계까지 One-Stop 지원 시스템이 가능한 실험실과 60억 상당의 50여종의 첨단장비가 구축
- 레이저/하이브리드 용접기, 마찰교반 용접기, 저온분사기, X-ray 잔류응력 측정기, 고온피로실험기, 고속카메라, Spot용접기, 적외선 카메라, 초음파 탐상기 등



MOU 체결기관으로는 국내 4개 연구소(한국생산기술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와 214개 산업체(한전 KPS, 한국차량 등)가 있으며, 해외의 명문대 및 연구소를 포함해 8개국 12개 기관(영국 케임브릿지 대학교, 일본 오사카 대학교, 인도 IIT, 중국 상해교통대학, 호주 국방과학연구소(CSIRO) 및 스웨덴 룰레오 공과대학 등)과 맺고, 매년 상호 방문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최초 이종재 경량소재-철계간(Al-Fe, Mg-Fe, Al-Ti) 신 접합기술 등을 개발하며 수송기계산업(자동차, 철도차량, 우주항공 등)의 제품 경량화에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용접·접합과학공학의 유망성 때문에 대학원생은 본교 출신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타고 출신의 학생들(한양대, 숭실대, 명지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등)이 입학

국내외적 네트워크

[국내] 약 10년 동안 산업자원부 지정 호남지역거점 “용접·접합센터”, “마이크로 조이닝센터 운영”으로 Know-how 및 인프라 구축
[국외] 해외 우수 전문기관 8개국 12기관과 MOU 체결 및 기술 교류



[조선대학교 용접·접합과학공학과 인프라 현황]

하여 재학 중에 있다. 또한, 세계 3대 공과대학이라 불리는 인도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출신의 인도 박사 후 연구원(Post-doctorate) Atanu Das와, 스웨덴 룰레오 공과대학의 박사과정 학생 Stephanie Robertson이 본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tephanie Robertson 학생은 국제용접학회의 스웨덴 대표를 맡고 있는 Alexander Kaplan 교수(룰레오 공과대학 Lulea Tekniska Universitat)의 박사과정 학생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한(NRF)-스웨덴(STINT) 연구자 교류사업의 공동연구 일환으로 방문 중이다. 이 사업의 경우 서울대와 조선대(용접공정 및 설계) 2개의 연구실만이 선정되어 있으며, 4년 간 공동연구를 위해 교수 및 대학원생이 매년 2~3개월씩 상호 체류하면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봄 우리 연구실의 대학원생이 스웨덴에 체류하면서 연구한 이후, 스웨덴에서 방문한 Stephanie Robertson 박사과정 학생은 “30mm이상의 두께를 가진 후판 Steel을 레이저를 사용하여 용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이러한 후판 레이저 용접부에 대한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 용접 공정 및 설계 연구실에서 제가 스웨덴에서 하기엔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앞으로의 저의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아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도의 IIT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Atanu Das 연구원은 “최근 수송기계 산업계(차량과 같은 운송수단

제조산업)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연비효율 개선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해 우리 용접공정 및 설계 연구실이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경량화 용접기술(이종 재료의 용접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인도와 한국에서의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두 사람은 “처음엔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한국에서 적응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연구실 학생들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면서 팀워크를 빠르게 형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생활하면서 저희는 연구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해 저희의 문화와 비교해보고, 이곳 문화에 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함께 평창과 대구, 울진 등 광주 이외의 다른 도시들을 함께 여행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죠. 그리고 언젠간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진해의 벚꽃 축제에도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인도나 스웨덴의 자연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한국의 자연 속에서, 특히 전통가옥인 ‘한옥’에서 이 친구들과 하룻밤을 묵는 것은 정말 환상적인 일이 될테니까요.”라며 입을 모아 한국과 용접공정 및 설계 연구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방희선 교수는 “의욕적이고 학구열이 넘치는 학생들이 모이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연구실 운영과 산학연 연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공학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학교와 지역공동체, 그리고 공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창업진흥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센터장 정명수)는 11월 1일 체육대학 1층 스포츠산업지원센터에서 GIST창업진흥센터(센터장 기성근)와 지역 창업 지원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생·일반인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창업 생태계 구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융접·접합과학공학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호남권성장지원센터’와 MOU협약체결



융접·접합과학공학과(학과장 방희선)는 11월 09일 (목) 오전 11시 교수회의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호남권기업성장지원센터(센터장 전태웅)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산학협력단 ‘(주)바이오리진’과 기술이전계약 체결



산학협력단(김재수 단장)은 2017년 11월 15일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주)바이오리진과 ‘베타상 트리칼슘-포스페이트계 합성골 본 칩 및 본 웨지 제조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재수 교수, (주)바이오리진 김원주 대표이사, 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강현철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계약은 의료용 합성골의 원천 기술 특허 2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료는 1억 원이다.

중국 연태대학교 문경학원 조세민 이사장 일행 “교류협력 강화 확대 방안” 협의차 방문



11월 3일 중국 연태대학교 문경학원 조세민 이사장 일행이 양교의 교류협력 강화와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 협의차 조선대학교를 방문했다.

방문객들은 총장실에서 강동완 총장과 면담하고 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중국 연태대학교 문경학원 조세민 이사장, 한소명 대외협력처장, 곽아기 한국어교사와 김성중 대외협력처장, 박복만 대외협력부처장, 김권수 국제협력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중국 연태남산대학교와 2+2 복수학위과정 협약체결



11월 7일(화) 오후 4시 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3월에 체결한 ‘교류협력협약서’를 바탕으로 ‘2+2’ 복수 학위 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 내용은 중국 연태남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이 1·2학년 과정을 70학점 이상 이수하고, 이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들을 조선대학교에 파견하여 3·4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본과 과정을 이수하고 60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

파견 학생의 양쪽 학교 이수 과정이 총 130학점 이상(단 졸업이수 최소 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는 제외함)이면 양

교가 인정하는 졸업 요구를 충족하게 되어 양쪽 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아울러 2.5+2.5 전문대 학부편입 협약도 체결했다. 중국에서 5학기를 이수한 전문대과정 학생을 조선대학교에 교환 학생 신분으로 1학기를 파견해 연태남산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장 취득하게 한 후 조선대학교에 등록 편입시켜 2년 내에 3·4학년 학부과정을 이수하고, 60학점이상을 취득하면 조선대학교 학사학위 증서를 수여한다는 내용이다.

• 조선대학교 2018학년도 정시모집 •

- 주소 : (우)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 대학홈페이지 : <http://www.chosun.ac.kr/>
- 정시모집 원서접수 사이트 : <http://www.chosun.ac.kr/>
- 입시상담 연락처 : 062)230-6669, 6666

조선대학교 2018학년도 정시모집은 총 987명을 가, 나군에서 수능위주와 실기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1. 전형일정

- 인터넷 원서접수 : 2018. 1. 6.(토) 09:00 ~ 2018. 1. 9.(화) 18:00 <http://www.chosun.ac.kr/>
- 서류제출 : 2018. 1. 6.(토) 09:00 ~ 2018. 1. 10.(수) 17:00
제출장소 :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1층 입학전형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등기, 택배)
- 입학문의 : 조선대학교 입학처 062)230-6669, 6666
- 실기고사
- 정시 '가'군 : 2018. 1. 18.(목)
- 정시 '나'군 : 2018. 1. 24.(수)
- 면접고사
- 정시 '나'군 사범대학 : 2018. 1. 23.(화)
- 정시 '나'군 평생학습자전형 : 2018. 1. 26.(금)
- 합격자 발표 : 2018. 1. 26.(목)
- ※ 군사학과 (정시 '가'군)
- 1단계 합격자발표 : 2018. 1. 11.(목)
- 인성, 체력, 신체, 면접고사 : 2018. 1. 16.(화) ~ 1. 18.(목)
- 합격자 발표 : 2018. 2. 2.(금)

2.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18학년도 수능 해당 영역에 응시한 자

가. 일반전형

모집단위(계열)	전형요소별 반영점수(비율)			
	수능	면접	실기	총점
인문계, 자연계, 의예과, 치의예과, 문예창작학과, 자유전공학부, 미술학과 시각문화큐레이터전공	700 (100%) 700 ~ 0	-	-	700 (100%) 700 ~ 0
사범대학(음악교육과 제외)	700 (97.8%) 700 ~ 0	100 (2.2%) 100 ~ 84	-	800 (100%) 800 ~ 84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700 (46.2%) 700 ~ 0	100 (1.0%) 100 ~ 84	800 (52.8%) 800 ~ 0	1,600 (100%) 1,600 ~ 84
체육대학 미술대학(시각문화큐레이터전공 제외)	700 (46.7%) 700 ~ 0	-	800 (53.3%) 800 ~ 0	1,500 (100%) 1,500 ~ 0

나. 군사학과전형

구분	1단계 선발 (4배수)	최종선발						전형총점
	수능	수능	체력검정	면접평가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회	
반영점수 (반영비율)	800점 800~0 (100%)	800점 800~0 (80%)	100점 100~0 (10%)	100점 100~0 (10%)	합격/불합격만 판정			1,000점 1,000~0 (100%)

※ 나군 평생학습자전형 : 학생부 50% + 면접고사 50%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가. 반영방법

- 국어, 수학, 탐구영역 : 2018학년도 수능시험 각 영역별 백분위점수를 반영비율에 따라 적용
- 영어영역 반영방법

등급	1	2	3	4	5	6	7	8	9
수능원점수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0
반영점수	200	170	140	110	90	80	70	60	50

나. 계열별 반영점수 및 비율

모집단위 (계열)	반영점수(반영비율)				총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인문	225 (32.1%)	150 (21.4%)	200 (28.6%)	125 (17.9%)	700 (100%)
자연 의예과, 치의예과	150 (21.4%)	225 (32.1%)	200 (28.6%)	125 (17.9%)	700 (100%)
예체능	300 (42.8%)	-	200 (28.6%)	200 (28.6%)	700 (100%)
자유전공학부	200 (28.6%)	150 (21.4%)	200 (28.6%)	150 (21.4%)	700 (100%)
군사학과	300점 (37.5%)	300점 (37.5%)	200점 (25.0%)		800점 (100%)

※ 탐구영역 : 응시한 2과목 백분위점수 평균 반영

※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로 총점을 초과할 수 있음

※ 군사학과 수능최저학력기준 :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5 이내

(가형 응시자는 해당 영역 1등급 상향 적용함)

다. 가산점부여

- 계열별 가산점

모집단위(계열)	가산점
인문	- 사회탐구 응시자는 사회탐구 반영점수의 10% - 외국어대학 지원자는 제2외국어/한문 백분위점수의 5%
자연 (의·치의예과 제외)	- 수학 가형 응시자는 수학 반영점수의 15% - 과학탐구 응시자는 과학탐구 반영점수의 10%
자유전공학부	수학 가형 응시자는 수학 반영점수의 15%

- 한국사 가산점

등급	1	2	3	4	5	6	7	8	9
수능원점수	50~40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5	4~0
반영점수	10			9			8		

※ 군사학과 한국사가산점 없음

4.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가군			나군			합계
				수능			실기	수능	실기	
				일반	지역인재	군사학과	일반	일반	일반	학생부 평생학습자 전형
인문 과학 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60	12						12
		영어영문학과★	70	14						14
		역사문화학과	50	10						10
		철학과	30	6						6
	예능	문예창작학과	32	6						6
	인문	한문학과	20	3						3
자연 과학 대학	자연	수학과	45					9		9
		컴퓨터통계학과	39					8		8
		물리학과	37					6		6
		화학학과	50					10		10
		생명과학과	50					10		10
		의생명과학과	45					9		9
		식품영양학과	42					8		8
법과 대학	인문	법학과★	162	32						32
		경찰행정학과	37	7						7
사회 과학 대학	인문	행정복지학부★	80	16						16
		행정학/사회복지학								
		정치외교학과	54	11						11
		신문방송학과	45	9						9
경상 대학	인문	군사학과(남)	50			12				12
		경영학부★	252					63		63
		경제학과★	133					26		26
		무역학과★	90					18		18
공과 대학	자연	토목공학과★	62	12						12
		건축학부	• 건축공학전공	45	9					9
			건축학전공(5년제)	36	7					7
		• 기계공학과★	135	27						27
		• 기계시스템 미래자동차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 미래자동차공학	131	26					26
		• 생명화학고분자공학과		121	24					24
		재료공학과		100	20					20
		• 산업공학과		49	10					10
		전기공학과		80	16					16
		• 광기술공학과		50	10					10
		• 선박해양공학과		36	4					4
		항공우주공학과		44	8					8
		• 환경공학과		60	12					12
		원자력공학과		41	9					9
		• 에너지자원공학과		50	10					10
		융접·접합과학공학과		30	6					6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가군			나군			합계	
					수능			실기	수능	실기		학생부
					일반	지역인재	군사학과	일반	일반	일반		평생학습자 전형
IT융합 대학	자연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100					26			26
			지능IoT전공	50					15			15
		컴퓨터공학과		120					19			19
		정보통신공학부	• 정보통신공학전공	76					12			12
			임베디드보안전공	30					9			9
사범 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35					13			13
		영어교육과		35					13			13
		특수교육과		30					9			9
	자연	수학교육과		27					8			8
		물리교육과		20					5			5
		화학교육과		20					5			5
		생물교육과		20					5			5
		지구과학교육과		20					5			5
	예능	음악교육과		30						6		6
	인문	교육학과		20					6			6
외국어 대학	인문	영어과		45					9			9
		아랍어과		36					7			7
		일본어과		40					9			9
		중국어문화학과★		50					11			11
		독일어문화학과		24					5			5
		러시아어과		35					7			7
		스페인어과		33					7			7
		프랑스어권문화학과		35					7			7
체육 대학	체능	체육학과★		100						30		30
		스포츠산업학과		30						10		10
		태권도학과		40						15		15
		공연예술무용과		30						5		5
의과 대학	자연	의예과		88	18	18						36
		간호학과		80	39							39
치과 대학	자연	치의예과		56	11	11						22
미술 대학	예능	회화학과	서양화전공	22						5		5
			한국화전공	15						4		4
		미술학과	현대조형미디어전공	23						5		5
			시각문화화큐레이터전공	13				3				3
		시각디자인학과		32						6		6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18						4		4
			섬유·패션디자인전공	28						6		6
			가구·도자디자인전공	35						7		7
		디자인공학과		35						7		7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6				12				12		
기초 교육	-	자유전공학부		29	15							15
보건 과학 대학	인문	상담심리학과		29	6							6
	자연	언어치료학과		27	5							5
	자연	작업치료학과		40	8							8
미래 사회 융합 대학	인문	휴먼융합서비스학부★		8							2	2
	자연	ICT융합학부★		12							2	2
총계				4,300	438	29	12	12	382	110	4	987

※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인원은 조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미래사회융합대학 소개

미래사회융합대학은 교육부의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6월에 신설하였고, 국고(20억)를 지원 받아 학습자지원 시설(첨단강의실, 동아리방 등)을 마련하는 등 성인학습자 친화형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2018학년도 모집학부(전공)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부 및 전공		출신고교 관련학과
휴먼융합 서비스학부	지식·자산서비스 전공	글로벌비즈니스, 경영정보, 디자인, 금융서비스,세무보건 행정, 디지털 경영, 정보처리과 등
	메디컬·뷰티서비스 전공	세무보건행정, 보건간호, 미용, 토털뷰티, 영상미디어, 의료전자, 산업디자인과 등
ICT 융합학부	IT응용전공	디지털전자, 전자기기과,광전자통신, 디지털금형, 자동차, 전기전자, 디지털콘텐츠, 정보처리과 등
	환경·에너지 전공	친환경농업경영, 환경조경, 에너지환경, 생명화공, 산업플랜트, 지적건설, 지형디자인과 등
	소방·설비·안전 전공	기계, 공장설비, 자동차설비, 자동화시스템, 전기전자제어, 농산업기계, 건축디자인과 등

※ 정시모집 일정 : 2018. 1. 6.(토) ~ 2018. 1. 9(화)

● 지원자격 : 2018년 3월 1일 기준 3년 이상인 재직자로서 다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함) 등을 졸업한 사람
2. 일반고를 재학하는 동안 “직업훈련교육 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 기관 중 직업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4.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정원내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 마감일(2018. 1. 8.기준) 현재 만 30세 이상의 평생학습자

● 전형 방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차 없이 면접(50%) + 학생부 성적(50%)로 결정하며 금년에는 학비 경감 대책으로 장학금 일부를 지원하고 수업은 주중 야간 2회와 주말을 활용한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운영으로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등 학습 친화형에 맞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사회에 발 맞추어 선취업·후진학 활성화와 평생교육체제의 공고한 확립을 도모하고자 지난 8월에 선취업·후진학 진흥을 위한 지역협의체 출범식을 가졌고,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산·학·관 평생학습 진흥협의회와 선취업·후진학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입학 할 예비 수험생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생교육원을 미래사회융합대학 소속의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으로 직제변경을 통하여 시민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이며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100여개 프로그램 속에서 지역 정서에 맞는 문화기획자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개설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고용 창출처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 교육원에서는 실버인지율이 지도자 과정(치매예방)을 12월 9일에 개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정규 학위과정의 미래사회융합대학과 비학위과정의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이 상호 역할 속에서 협력하여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2018학년도 정시모집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교학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_ 062-230-7970~1 팩스 _ 062-234-3015 홈페이지 _ www.chosun.ac.kr/future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

한국치매예방협회 광주본부와 협약체결 및 치매예방 지도자 과정 개설

조선대학교 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은 11월 28일 ‘(사)한국치매예방협회 광주본부(김옥 본부장)’와 ‘치매예방 지도자 교육과정’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국책연구단과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치매연구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새롭게 ‘치매예방지도자’ 교육과정을 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에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2월 9일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치매예방지도자 교육과정”은 총 6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을 마치게 되면 치매예방지도자 과정 수료증 외에도 “실버인지 놀이 전문지도자 2급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수강생 모집은 각 기수 개강 일자별로 수시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 062-230-7700~2 으로 문의하면 된다.



언어교육원 겨울학기 개설강좌 안내

- **수강기간** _ 2018년 1월 8일 ~ 2월 27일 (7주 과정) / 1월 4일 ~ 2월 28일 (8주 과정)
- **문의사항** _ ☎(062)230-6675/6676, FAX:(062)234-6769
- **인터넷접수** _ <http://lei.chosun.ac.kr>

■ 접수방법

- ① **방문접수** : 조선대학교 국제관 4층 언어교육지원팀
(주중 09:00~20:30) ☎(062)230-6675~6
- ② **인터넷 접수** : <http://lei.chosun.ac.kr>

■ 결제방법

- ① **카드결제** : 방문 시에만 가능
- ② **입금계좌** : 광주은행 004-107-498225
(예금주 :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 입금 시에는 반드시 수강자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 폐강 및 환불

- 등록인원이 개설 가능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 (3~5일 이내 개별공지)
- 개강 당일 : 수강료 전액 환불(개강일 강좌별 상이)
- 개강일로부터 4일 까지 : 80% 환불(공휴일 미포함)

- 이후 : 환불 불가

※ 개강일 이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별도의 차감 및 보강 없음.

★ 환불 시 유의사항 ★

- ※ 일반인일 경우 본인 이름의 통장사본과 본인 신분증 필요
- ※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은 학생증 연결계좌(광주은행)로 입금 (졸업생 제외)
- ※ 입금자 또는 환불액 수령인과 수강자가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할 서류 필요(가족관계증명서 or 의료보험증, 입금자명 통장 사본, 환불 신청서)
- ※ 모든 환불은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수강자와 환불 신청인이 다를 경우 환불 불가

English Conversation

★ Level Test ★

홈페이지(<http://lei.chosun.ac.kr>)에 별도 공지 예정
(신규 수강자 2단계/중급 이상 단계 수강을 원할시 레벨테스트 필수)

* 수준별 영어회화

수강료 - 140,000원(일반인) / 112,000원(재학생) (7주)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초급	01 07:50~08:40	Kathryn Kelly Kim	Lab M
	02 09:00~09:50	Doh Reme Murdock	
	03 11:00~11:50	Matthew French Mark	
	04 17:00~17:50	Robert Smith Iian McCloud	
	05 18:00~18:50	Andrew Reuven	
중급	01 07:50~08:40	Duyen Thomas Kim	Lab L
	02 09:00~09:50	Jason Hallie	
	03 10:00~10:50	Doh Byungseon Joonseong Park	
	04 19:00~19:50	Walter Reuven	
	05 17:00~17:50	Rachel Rohan	
고급	01 07:50~08:40	Jessica Solo. Derek	Lab K
	02 09:00~09:50	Jonathan Bowman Elizabeth	
	03 10:00~10:50	Joel Proinseas	
	04 17:00~17:50	Michael Cory Jon Trefler	
	05 18:00~18:50	Erin Stewart Patrick	
초급	01 07:50~08:40	Louis Thomas Kim	Lab I
	02 09:00~09:50	Grace Karly	
	03 18:00~18:50	Andrew Hector Kim	
	04 19:00~19:50	Doh Byungseon Faith	
	05 10:00~10:50	Alexander Stephen	
중급	01 07:50~08:40	Walter Ryan	Lab H
	02 10:00~10:50	Nathaniel Hallie	
	03 18:00~18:50	Michael Cory Jon Trefler	
	04 09:00~09:50		
	05 19:00~19:50		

* 영어회화 Intensive Course

수강료 - 120,000원(일반인) / 96,000원(재학생) (7주)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초급	01 월, 수 10:00~11:50	Jason Derek	Lab A
	02 화, 목 10:00~11:50	Erin Stewart Rohan	
	03 화, 목 19:00~20:50	Grace Ryan	
중급	01 월, 수 10:00~11:50	Robert Sproule Patrick	Lab B
	02 화, 목 10:00~11:50	Nathaniel Faith	
	03 화, 목 18:30~20:20	Joel Proinseas	
고급	01 월, 수 10:00~11:50	Jessica Solo. Jonathan Boot	Lab C
	02 화, 목 10:00~11:50	Doh Reme Jonathan Boot	
	03 화, 목 18:30~20:20	Robert Smith Iian	

* Daily Intensive Course

수강료 - 300,000원(일반인) / 240,000원(재학생) (7주)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고급	매일 16:00~17:50	Darrell David Magee	Lab C

* 3주 Daily Intensive Course (1월 8일~1월 26일)

수강료 - 130,000원(일반인) / 104,000원(재학생)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초급	매일 11:00~12:50	Jessica Turnbull	Lab K
중급	매일 15:00~16:50	Enda	Lab L
고급	매일 11:00~12:50	Timothy	Lab L

* 겨울방학 전반기 3주 영어회화 (1월 8일~1월 26일)

수강료 - 70,000원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초급	매일 12:00~12:50	Jonathan Bowman	Lab M
중급	매일 13:00~13:50	Matthew	

* 겨울방학 후반기 3주 영어회화 (2월 1일~2월 23일)

수강료 - 70,000원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초급	매일 10:00~10:50	Murdock	Lab G
중급	매일 18:00~18:50	Hector Kim	
고급	매일 15:00~15:50	Erin Kim	
고급	매일 11:00~11:50	Joonseong Park	

Job Preparation

신규 강좌

* English Job Interview

수강료 - 90,000원 (7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English Job Interview	월, 수, 금 17:00~17:50	Arthur Karly	Lab A

* English Presentation Skills

수강료 - 140,000원(일반인) / 112,000원(재학생) (7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English Presentation Skills	월, 수, 금 11:00~12:30	Alexander Stephen	3207

FUN & FUN English

전반기 강좌 (1월 8일 ~ 1월 26일, 3주)

* Rachel - English Novel

수강료 - 70,000원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English Novel : Of Mice and Man	매일 09:00~09:50	Rachel	Lab C

(공과 우정을 따듯하게 묘사하고 이상적인 유대를 거부하는 거룩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원서로 만나보자!)

*** Screen English**
수강료 - 70,000원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Screen English	월, 수 13:00~14:50	Stuart	2304

(This class will study advanced English from realistic and historic Western media & popular culture sources. Level 3 or higher.)

*** Duyen - Free Talking through Current Events**
수강료 - 70,000원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Free Talking through Current Events	매일 10:00~10:50	Duyen	Lab I

*** Debating English**
수강료 - 70,000원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Debating English	매일 10:00~10:50	Lisa	Lab G

*** Travel English**
수강료 - 70,000원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Travel English	월, 수 10:00~11:50	Kathryn	2304

*** Reading & Discussion**
수강료 - 70,000원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Reading & Discussion	월, 수 13:00~14:50	David Miller	Lab I
	화, 목 12:00~13:50	David Miller	

후반기 강좌 (2월 1일 ~ 2월 23일, 3주)

*** Pronunciation & Listening**
수강료 - 70,000원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Pronunciation & Listening	매일 09:00~09:50	Kelly Kim	Lab A

(Students will be able to listen to and understand English as spoken by native speakers with a variety of accents and dialects.)

*** Exploring English through Short Stories, Poetry and Articles**
수강료 - 70,000원

신규 강좌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Exploring English through Short Stories, Poetry and Articles	월, 수 13:00~14:50	Elizabeth	Lab A

(Students will be able to learn english through short stories, poetry and articles. Level 4 or higher.)

Writing & CNN

전반기 강좌 (1월 8일 ~ 1월 26일, 3주)

*** Basic Writing**
수강료 - 70,000원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Basic Writing	월, 수 11:00~12:50	Louis	Lab G

*** Essay Writing**
수강료 - 70,000원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Essay Writing	화, 목 11:00~12:50	Lisa	Lab H

후반기 강좌 (2월 1일 ~ 2월 23일, 3주)

*** CNN 뉴스청취 (CNN News Listening and Discussion)**
수강료 - 70,000원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CNN	01	매일 12:00~12:50	Mark
	02		Erin Kim
			2304

★ 1:1 영어 회화 / 1:1 제2외국어 회화 ★
(4주 12회) 수강료 - 500,000원(일반인/재학생)

수업시간	7:50부터 19:00사이 한 시간!
강사 및 강의실	강좌등록이 완료된 후 알려 드립니다.

- 4주 내 한 회 추가 시 42,000원
- 자세한 문의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TOEIC ◆ OPIc ◆ TOEIC Speaking

★ 토익 강좌 수강 시 선착순 교재 증정 ★

*** 김윤식 TOEIC**
수강료 - 220,000원 (8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신토익 750 2개월 완성반	매일 08:00~09:20	김윤식	2304
교재 - 토익 단기 공략 750+			

*** 김안나 TOEIC**
수강료 - 200,000원 (8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초급	01	월, 수 10:00~11:50	김안나	2108
	02	월, 수 18:30~20:20		
중급+실전	03	화, 목 10:00~11:50		
교재 - 자체 제작 교재				

★ 스테디 : 01, 03분반 09:30~10:00 / 02분반 18:00~18:30

*** 김수정 OPIc - OPIc을 JOB하라!**
수강료 - 180,000원 (8주)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공식으로 배우는 오목달 IM1 → IH	월, 수 18:00~20:20	김수정	멀티 어학 교육실 (3207-2)
	화, 목 18:00~20:20		

★ 매주 지정된 시간에 무료 말하기 연습으로 Level UP UP!
요일 및 시간 조율 가능! 교차수강가능!

*** 레나정 TOEIC Speaking**
수강료 - 180,000원

매달 개강 (1월 5일/ 2월 2일 개강) 4주 단위로 운영				
강좌명	시간		강사	강의실
토익스피킹	월, 수, 금	08:00~09:40	레나정	3207
		14:00~15:40		
★ 스테디 : 수업 후 1시간				

제2외국어

중국어

*** 중국어 5주 집중 방학 특강**

5주 과정 (1월 8일~2월 9일) / 수강료 - 110,000원(일반인) / 99,000원(재학생)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입문	월, 수, 금 09:30~10:40	임지영	Lab E
교재 : 참 쉬운 중국어 1			
초급	월, 수, 금 10:50~12:00		
교재 : new 스피킹 중국어 첫걸음 level up			

*** 원어민 중국어 회화**

4주 과정(1월 9일~2월 1일) / 수강료 - 70,000원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입문	화, 목 17:00~18:20	장웨이	Lab D
초급	18:30~19:50		

스페인어

*** 스페인어 회화**

3주 과정 (1월 8일~1월 26일) / 수강료 - 90,000원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입문	매일 11:00~11:50	Ronald	2307

프랑스어

*** 프랑스어 독해·문법(7주)**

수강료 - 120,000원(일반인) / 108,000원(재학생)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초급(A2)	월, 수, 금 15:30~16:30	이민희	2307

독일어

*** 독일어 (7주)**

단계	시간	강사	강의실	수강료
A1-1	화, 목 10:00~10:50	Reinhold Rauh	Lab E	80,000
A1-2	화, 목 11:00~11:50			
A2-1	화, 목 12:00~12:50			
A2-2 (능력시험 A2대비)	월, 수, 목 (4주) 11:00~11:50	신원경	Lab D	70,000
B1 (능력시험 대비반)	월, 수 12:30~14:10			140,000

* 독일어 수업 단계는 유럽연합 외국어 공통기준(GER)에 따른 분류입니다.
* A2-2(독일어 능력 시험 A2 대비) 수강 기간 : 1월 4일 ~ 1월 31일(4주)

일본어 강좌는 추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치과대학(원) 의료봉사동아리 카톨릭학생회 “연탄나눔봉사활동을 마치고”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의료봉사동아리 카톨릭학생회는 2017년 9월 22일(금) 치과대학 1층에서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2017년 11월 25일(토)에 광주광역시 동구청과 함께 동구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연탄 나눔봉사를 하였습니다. 총 11가구에 3,300장을 기부하였고, 그중 4가구에는 1,200장을 직접 배달하였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을 좀더 의미 있고 뜻 깊은 곳에 사용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아직 광주지역에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듣고, 겨울이라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직접 연탄배달봉사를 하는 것도 정말 의미있는 일인 것 같아 연탄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연탄을 나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랴’ 싶었는데 30분 정도가 지나자 땀방울이 송송 맺히고, 2시간이 지나자 온 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진심이 전해졌는지 모두 함께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하나며,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셨을 때는 어쩔 줄 몰라 머쓱했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톨릭학생회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의료봉사동아리로서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연탄나눔봉사 참가자

▲유재식(대표지도교수; 구강악안면외과) ▲김동기(지도교수; 예방치과) ▲손미경(지도교수; 보철과) ▲유선경(지도교수; 해부학교실) ▲조형훈(지도교수; 보존과) ▲김민수(교정과; 레지던트 2년차) ▲조아라(보존과; 레지던트 1년차) ▲이동규(카톨릭학생회 회장; 본과2학년)외 약 40명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카톨릭학생회는

1982년 창립된 이래로, 35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지역 사회 주민들의 구강 보건증진과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정기봉사와 이외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봉사는 치과진료접근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의료봉사를 1박 2일로 떠납니다. 또 광주·전남 지역 장애인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 찾아가 구강검진, 잇솔질 교육, 스케일링 및 치료 등의 치과의료봉사를 합니다.

● 생명과학과 정소영 대학원생 최우수 논문상 수상

생명과학과 식물계통분류학연구실 소속 정소영 대학원생(박사과정, 지도교수: 조태오 교수)이 지난 2017년 10월 8일~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8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조류학회(Asian Pacific Phycological Forum: APPF 2017)에서 논문 'Taxonomy and Phylogeny of the genus Phymatolithon (Hapalidiaceae, Rhodophyta) in Korea'을 발표해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 치과대학 대학원생 유지민 'TACT 2017국제박막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치과대학 최한철 교수 연구실(치과재료학교실)의 유지민(석사과정) 대학원생이 2017년 10월 15~18일 대만 동화대학교에서 개최한 TACT 2017 국제박막학술대회(International Thin Film Conference)에서 2017년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과 지역창의인력양성사업지원으로 수행한 'Morphology observation after cyclic nanotube formation on Ti-6Al-4V alloys' 논문을 발표하여 TACT 2017 Student Award 부문 최우수논문상(포스터부문)을 수상했다.

●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4학년 김민재, 이용감, 이채교 학생 (사)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주최 '제14회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각각 대상(이채교) 및 우수상(김민재, 이용감) 수상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4학년인 김민재, 이용감, 이채교 학생이 (사)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에서 주최한 제14회 대학생프로젝트경진대회에서 이채교 학생이 대상을, 김민재·이용감 학생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 공과대학 첨단소재공학과 신승환 대학원생(석사과정)

'2017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생구두발표 우수상 수상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김선중 교수 연구실(첨단제련공정연구실) 소속 신승환 대학원생(첨단소재공학 석사과정)은 지난 10월 25~27일 대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던 2017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생구두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대학원생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장학금, 우수논문 포스터 수상과 국제학술대회 발표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박민아 학생(지도교수 신문자)이 2017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에서 수여하는 '이승환 장학금'을 받았으며, 문태훈 학생(지도교수 표화영)이 '2017 제5회 한국언어치료학회와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분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 공과대학 광기술공학과 윤영호 대학원생(석사과정, 지도교수 주기남)

‘제13회 삼성전기 논문대상’ 동상 수상

● 경영학부 대학원 박아영(박사과정), 손현(석사과정)

‘2017 한국복잡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 용접·접합과학공학과 박주현 대학원생

학회 우수 포스터상 수상 및 Stephanie Robertson 연구교류생 우수 사진전 수상

용접·접합과학공학과 박주현 대학원생(석사과정)이 대한용접·접합학회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한(NRF)-스웨덴(STINT) 연구자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한 스웨덴 Luleå 공과대학교의 Stephanie Robertson 연구교류생(박사과정)은 우수 사진전상을 수상했다.

● 조선대학교 임상규, 박민규, 황인조 대학원생 국제 및 국내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임상규, 박민규, 황인조 대학원생(최한철 교수 치과재료학 연구실)이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에서 지역혁신창의 인력양성사업과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을 지원받아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임상규 대학원생(석사 2학기)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HyMaP 2017 국제 학회에서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과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Formation of Bone-like Apatite after Functional HA Coating Ti-6Al-4V Alloy’ 제목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7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치과용 CAD/CAM 을 이용한 지르코니아 보철물 가공용 툴의 표면특성’을 주제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황인조 대학원생(석사 4학기)과 박민규 대학원생(석사 2학기)이 2017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STMT 2017 국제 학회에서 포스터 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황인조 학생이 연구한 “Corrosion behavior of RF-sputtered Zn and Si Coatings on PEO-treated Ti-6Al-4V” 는 플라즈마 전해 산화법을 이용하여 다공성 표면을 형성 한 후, 아연을 RF-sputtering방법으로 코팅한 연구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박민규 학생은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Hydroxyapatite Coatings on the Ti-6Al-4V Alloys”로 임플란트 합금에 나노튜브를 형성하고 기능성 물질을 코팅하여 최우수논문상을 수상. 또한 지난 2017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Bioactive Element Coatings on PEO-treated Ti-6Al-4V Alloy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 정보통신공학과 황준상, 전형호, 김상현 학생 대학생논문경진대회 대상 수상

정보통신공학과 황준상 학생팀(지도교수 권구락, 4학년 황준상, 3학년 전형호, 김상현)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와 한국정보기술학회 공동으로 주최한 대학생논문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진대회에 발표한 논문은 ‘처방전 스캔을 위한 OCR이미지 인식을 디지털 솔루션’으로 병원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약물 및 복약 정보에 관한 부족으로 야기되는 지식 전달 및 정보 검색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OCR기반 이미지 자동 분석 맞춤형 모바일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이다.

●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함정균 우수논문상 수상 / 학부과정 4학년 이민정 (사)대한설비공학회 최상홍 인재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상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함정균 연구원과 학부 4학년 이민정 연구원(신재생에너지실험실(REL), 지도교수 조흥현)이 11월 29일 열린 (사)대한설비공학회 2017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학부 4학년 이민정 연구원은 우수논문상뿐만 아니라 최상홍 인재 학술상도 수상했다.

조선대학교 자연과학 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컴퓨터 통계학과 팀(이석민, 조성훈, 박경호, 김윤수) 대상 수상



자연과학대학(장인홍 학장)은 지난 11월 23일(목) 오후 4시 ‘자연과학 콘텐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취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시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에게 각각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대회 대상은 “전력제어 앱 ECA”

주제를 발표한 컴퓨터통계학과 이석민, 조성훈, 박경호, 김윤수 학생이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신경염증에 관여하는 미세아교세포에 대한 핑생이모자반 추출물에 항염증 효과 검증” 주제를 발표한 생명과학과 조준휘 학생이 받았다.

체육대학 체육학과 ‘자산불링장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체육대학(이경일 학장) 체육학과(안용덕 학과장)에서는 학업성적 우수 학생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획득하였거나, 우수선수로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을 선발하여 11월 27일 체육대학 3층 세미나실에서 자산불링장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 장학 사업은 자산 불링장 김평중 대표가 체육대학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0,000원의 발전 기금을 기탁하면서 이루어졌다. 올해부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자산불링장 장

학금으로 명칭을 정하고 매년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번 장학금은 총 10명에게 지급하였다. 성적우수자 ▲정강현(체육학과 4년) ▲김류경, 정소연(체육학과 3년) ▲최선유, 신영웅(체육학과 1년) 등 5명과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 ▲김동현(체육학과 4년) ▲최주희, 이정훈(체육학과 3년) 등 3명과 국내외 경기실적 우수자 ▲김민재(체육학과 2년) ▲이창(체육학과 1년) 등 2명에게 개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체육학과에서는 매년 학업성적 우수자와 취업에 대비한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자, 그리고 우수선수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7프랑스어권문화학과 원어연극 공연 ‘어린왕자’ 12월 1일 공연

‘1학년 학생들이 배역, 연출, 기획, 무대구성, 의상, 분장 등 도맡아’



프랑스어권문화학과(학과장 임정혜) 1학년 학생들이 <글로벌문화 프랑스어>과목 수업의 일환으로 연습해온 “어린왕자”연극 무대를 마련했다. 프랑스작가 생텍쥐페리가 1943년 발표한 ‘어린왕자’는 어린이의 본성을 극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어리고 순수한 영혼과 눈으로 메말라 가는 인간과 세상을 성찰하며 어른들의 감성을 일깨우는 아름다운 문학작품으로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평을 받으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1학년 학생들이 배역은 물론 연출 및 기획, 무대구성, 의상, 소품, 분장, 조명, 음향, 효과 등도 직접 준비 진행하여 관심을 모았다.



대학일자리센터 활동사진



인문과학대학 심리잡고콘서트



경상대학 1차 진로캠프



취업캠프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내일(My Job)이 있는 내일(Tomorrow)
취업컨설팅 및 박람회



외국어 대학 진로 잡(Job)고(Go) 체험의 날
이동상담소 운영



조선대학교 청춘더함 대동제 축제
이동상담소 운영



CAP+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실전모의면접



광주청 서포터즈 KTV견학

대학일자리센터 활동사진



지역기업 청년교류 활성화 사업
“맞춤형 일자리” 청년 채용박람회



강진 성전 중고등학교 진로체험의 날 운영



매주 첫째 주, 둘째 주 홍보·방문의 날 운영



고등학교(별교, 별교여자, 보성예당, 전남공업, 전자공업)
찾아가는 취업특강



해외취업 박람회 및 설명회 참여



현장채용면접&컨설팅 미니박람회 운영



여학생 면접취업전략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에너지밸리 채용박람회 지원



경신여고 진로체험의 날 운영



2017 CU 산학협력 EXPO 이동상담소 운영

이이남 작가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공연



조선대학교 동문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서 개막공연을 펼쳤다. 전통타악과 미디어아트, 현대무용,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룬 특별한 융·복합 미디어 개막공연 ‘더 오케스트라 _ 두 개의 현실’이 12월 1일(금)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에서 진행되었다. 융·복합 미디어 퍼포먼스로 이이남 미디어아트 작가가 총감독을 맡고, 무용가 박진수 연출 그리고 전통타악그룹 얼썬 출연, 김선철 클래식 음악감독, 김보람 음악작곡, 현대무용(안무) 김영미, 박근태 무대감독 등이 함께했다.

* ‘2017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인간×기계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더 오케스트라 _ 두 개의 현실’은 빛의 도시 광주가 세계로 연결되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며 융합하는 하모니를 오케스트라 형식을 통해 담아냈다. 기존 공연 형식의 틀을 깨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미디어아트를 예술적 중심부로 가져오는 시도를 보여주고자 했다.

공연은 故 백남준 작가의 모티브 영상, 미래도시의 명암을 보여주는 ‘혁명의 소리’, 인간이 만든 기술에 오히려 인간이 갇혀버리는 ‘자승자박’, 인간과 기계가 융화되고 공존하는 오케스트라 하모니 ‘더 오케스트라’ 등 총 4막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라 故백남준 작가가 바이올린을 끌고 가는 퍼포먼스 ‘이런 소리도 있다’를 오마주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는 “백남준 작가가 ‘이런 소리도 있다’는 충격적 퍼포먼스로 비디오아트의 세계를 알렸듯 이번 개막공연 ‘더 오케스트라 _ 두 개의 현실’을 통해 백남준 작가의 정신을 생각해보며, 4차 산업의 물결에서 인류와 문명이 나아가야 할 지점에 대해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선정 3주년 및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개관 1주년을 맞아 개최한 ‘2017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12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7개국 8개 도시가 참여하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과 함께 본전시(주제전), 특별전(창의도시 작가교류전)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한편, 이이남 작가는 지난 10월 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예술친선대사에 위촉되어 평화와 화합, 후원 나눔 등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제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기 인수식 미디어아트 감독으로 참여하였고,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는 등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현재 파리, 아부다비, 룩셈부르크, 대만 등에서 해외전시중이며, 마이애미,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헤이그 등에도 해외전시가 계획되어 있다.



박노식 시인
(충동창회 상임이사)

고개 숙인 모든 것

조용한 아침인데,
버스승강장 간이의자에 가위다리로 걸터앉은 한 여인이 제 발끝을 오래 내려다보는 것을 스쳐가며 보았다. 흰 발목보다 슬픈 목덜미가 먼저 내 가슴으로 달려드는 순간에 간밤의 꿈이 떠올랐지만 백미러가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고개를 꺾은 채 휘인 나무처럼 굳어있었다.

이건 그리움이 아니라 절규다, 라고
내가 악몽 끝에 외치는 것은
산비탈에 뿌리내린 보리수나무 열매들이
허공에 물구나무 선 채로 몸서리치다가
죄다 투신해버리는
임종을 보았기 때문이다

담양 장날, 서 있는 상인보다 앉아서 졸고 있는 노파들을 보면 내 목이 먼저 꺾인다

고개 숙인 모든 것들이 나에겐 절규다
담벼락의 나팔꽃, 퇴약별의 고춧대, 태풍 지난 개암나무가지, 울타리 밖 단감나무, 적설을 머리에 인 노송.....

조용한 아침인데,
그 여인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약력 _ 박노식 시인. 조선대 국문과 졸업. 전남대 대학원 국문과 석사 수료. 2015년 《유심》에 「화순 장을 다녀와서」 외 4편으로 신인상 등단. 시집 『고개 숙인 모든 것』이 있음

조선대, 자치·분권 사회의 ‘준비된 미래’

조성철 대외협력외래교수 (충동창회 상임이사)



조선대학교는 우리 사회가 맞이할 변화의 ‘준비된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꽤 오랫동안 실천해오고 있어서다.

자치·분권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역과 지역의 총합이 국가다’이다. 이전까지 우리는 국가, 정확하게는 중앙정부의 통제 시대에 살았다. 국가가 결정하면 전국적으로 획일화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시대를 말한다. 이것이 관치이다.

자치·분권 시대의 대전제는 앞에 붙은 ‘연방제’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이 대등한 권한을 갖고 미래의 풍요와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제 ‘관치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대한민국이 자치시대에 들어섬을 선포하는 시점이 왔다.

자치는 스스로 다스림을 말한다. 스스로 다스리는 주체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다. 공동체 또는 지역의 정의, 풍요, 진보를 위해 나서는 게 자치의 의미다. 분권은 자치의 권한을 모두가 동등하게 행사함을 뜻한다.

몇 가지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개편돼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과 일

자리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다. 시민은 통치의 대상에서 주권자로 일어서 지방정부와 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을 경영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과 정책 구사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가 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된다.

1988년 2월 출범한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는 자치·분권의 구체적 작동 모델을 보여줬다.

설립정신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구체제를 몰아낸 1980년대 후반, 조선대의 상황은 복잡다단했다. “조선대를 바로 잡는 것 보다 한국 사회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게 더 쉽다”는 우스개가 등장할 만큼 학교 상황은 엇고설킨 실타래 그 자체였다.

때론 더디고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대안이었지만, 피폐한 학교를 추스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대자협에 있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자협이 보여 준 자치에 그 뿌리가 있다.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숙의해 하나의 방향을 마련하는 그 시스템이 오늘의 조선대학교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학을 학교 법인이자 본부가 아닌 구성원들의 합의로 운영하는 사례는 조선대학교가 사상 최초였다. 대자협 출범 초기 ‘빨갱이’라는 색깔론부터 ‘산으로 배를 끌고 갈 것’이라는 우려까지 수많은 부정이 외부에서 쏟아졌다. 그 비난과 우려에 맞서 한 방 먹인 것은 다름 아닌 구성원들의 자치력에 있었다.

구성원이 총장 선출, 대학 경영 등에 개입하는 일은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불러왔다. 다수의 뜻을 정책에 녹이고, 경계해야 할 독선과 독주를 예방하고, 유사시 구성원의 집단 지성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민주적 통제의 장점이다.

우리 사회가 조선대학교 대자협 모델을 일찍 받아들여 적용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가정은 역사에서 부질 없는 것이라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이를 바로잡고자 길거리에서 매서운 겨울을 난 시민들의 수고로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단언한다. 권력의 독점, 권력의 사유화, 공화정 정신의 부정 등이 애초에 발붙일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1985년 입학했다. 학생운동에 투신해 활동하다 이철규 열사 사인 진상규명 투쟁으로 3년 10개월가량 수감생활도 겪었다. 입학 10여 년 만인 1994년 졸업했다. 긴 시

간 동안 조선대에 적을 둔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자긍심이 높다. 이 자긍심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활동하게 한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대가 부여한 자긍심은 자치·분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불세출의 개인보다 위대한 것은 공동체’라는 명제를 조선대가 증명해서 그렇다. 명제의 증명에 필자가 아주 미미한 힘이나마 보탬 수 있었던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 조만간 헌법 개정을 거쳐 7공화국 시대를 우리는 맞는다. 7공화국은 일찍이 겪지 못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재구성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가지 않은 길이라 많이들 걱정한다. 하지만 필자는 자치·분권의 미래를 낙관한다. 이미 30여 년 동안 조선대학교가 자치·분권의 유용함을 현실에서 입증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준비된 미래’를 한국 사회에 보이고 있다. 필자 역시 정치학도로서, 자치·분권 활동가로서 그 ‘준비된 미래’를 사회 각 부문에서 적용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를 책임질 자치·분권 모델을 미리 제시한 조선대학교가 자랑스롭다.

경력

- 전)오마이뉴스 광주 전라 본부장
-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광주공동선대위원장
-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광주경실련 기획실장
- 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ISO국제심사원협회 전문위원/사회적기업분과 위원장
- 현)조선대학교 대외협력외래교수
- 현)(사)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사
- 현)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 현)새시대를 여는 벚들 상임대표
- 현)포럼광주 공동대표
- 현)민주평통 광주남구협의회 자문위원
- 2012 문재인후보 광주전남선대위 시민캠프 조직본부장

유순남 에세이 〈가위 바위 보〉

이 책의 저자 유순남 작가는 본교 27회 동문으로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3년부터 금년 까지 15년 동안 중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기초의원, 사회활동가, 수필가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느낀 생각들을 수필이나 칼럼 형식으로 광주·전남 일간지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책을 냈다.

글을 읽어보면 작가의 다양한 이력만큼이나 인생을 매우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다. 좌우명 ‘무엇이 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다.’를 반영하듯 책 곳곳에 하는 일이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배어있다.

“저는 인생이 ‘가위 바위 보 게임과 같다고 생각해요. 가위는 주먹한테 지지만 보를 이기거든요. 보는 주먹을 이기지만 가위한테 지구요. 마찬가지로 주먹은 가위를 이기지만, 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선택은 자유롭지만, 모든 인생이 완벽할 수는 없고, 어떤



인생을 택하든지,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작가는 강조했다.

또 ‘길 위에서 길을 찾다’라는 글에서는 ‘세상은 풀 수 없이 흩어진 암호의 숲이라고 한다. 그 알 수 없는 숲에서 각자의 해답을 찾고자 길을 걷는다.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찾는다. (중략) 인생은 각자의 몫이며, 한번 나선 길은 그것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걸음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이 끝이 나기 때문이다.’라며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글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꼭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하는 법이 아닐까?’라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사회의 부조리를 보는 날카로운 눈과 따뜻한 선생님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녀지만 결국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많은 교사임이 더 크게 느껴졌다.

저자약력 _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중등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다 육아로 퇴직, 2002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4대 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 문예운동의 ‘수필시대’로 등단한 후 광주문인협회 회원, 생오지문학회 회원, 무등수필문학회 회원, 징검다리수필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화순중학교에서 근무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강동완 총장 ‘2017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의 ‘2017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8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1회로 졸업한 강동완 총장은 조선대 치과대학 병원장과 학장, 조선대 치의공인력사업단장,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실무위원과 광주-대구 세계치과산업벨트추진기획위원장, G10 생명과학문화포럼 공동대표,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장 등 학계와 관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사회·봉사부문에서 ‘자랑스러운 조대인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강동완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선대 총장 선거에서 당선돼 대학의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융복합 교육·연구 대학의 기치를 걸고, 치매 대책사업 수주, 권역 감염병 구축사업 구현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학문교류 차원에서 중국의 공자학원, 베트남 학당 등을 학내에 개설하고, 인도네시아와 함께 치의학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동완 총장은 취임 2기를 맞는 내년, 교육에서는 6C(Communication, Convergence, Creativity, Characterization, Challenge, Contribution) 인재상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경영에서는 6가지 경영철학인 DESIGN(Data, Empowerment, Story service, Insight, Global, Networking)을 기조로 대학의 구조개혁도 신속하게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동완 총장은 “현직 총장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교육계를 비롯해 치과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인권의 중심대학인 ‘휴먼 르네상스’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특성화 연구중시 대학 ‘과학 르네상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르네상스’의 슬로건을 내걸고 대학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과거 서열 중심의 대학이 아니라 사회 혁신을 위한 가치창출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상소감 인터뷰

Q.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훌륭한 분과 함께 수상자가 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1980년 2월 25일에 조선대 1회로 졸업했는데, 동문에게도 이 상이 기쁨이 되었으면 하고, 현직 총장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교육계를 비롯해 치과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겠다.”

Q. 학계, 시민단체, 정부 유관단체 등 다방면으로 오랫동안 활약했다. 치과 의사의 폭넓은 사회 진출을 위해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는가?

“열린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이 중요하다. 치과 의사는 진료현장에서 하루에 수십 명과 만나게 되는데,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환자나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나의 스승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온다. 옛말에도 세 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일 수 있다고 했다. 운동 나의 스승이라는 자세로 사는 게 중요하다.”

Q. 강동완 총장의 경영론은 ‘대학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로 압축된다. 이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새로운 대학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강동완 총장은 총장에 취임하면서 평화, 인권의 중심대학인 ‘휴먼 르네상스’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특성화 연구중시 대학 ‘과학 르네상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르네상스’의 슬로건을 내걸고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의 서열 중심의 대학이 아니라 사회 혁신을 위한 가치창출의 대학이 되어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 르네상스 사업은 그 일환으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2019년에는 세계수영연맹에서 개최하는 다 이빙 대회를 대학이 개최한다”.

■ 3D 융합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학교병원은 10월 11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광주지역 생체의료 3D융합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내 대표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식에는 조선대병원을 비롯하여 조선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이 참석하여 광주테크노파크와의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한 생체의료분야 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 환자 맞춤형 의료용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컨설팅 ▲ 3D콘텐츠(VR/AR) 및 3D프린팅 등 고부가가치 의료소재 공동기술개발 ▲ 생체의료 관련 신사업 발굴 및 공동기획 ▲ 관련 정보 및 인적

교류 등 각 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 조선대병원 고영엽 교수, 마르퀴스후즈후 10년연속 등재



조선대학교병원은 순환기내과 고영엽 교수가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 인 더 월드’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판 (35th Edition)에 등재되어, 2009년부터 10년 연속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고영엽 교수는 이전에도 영국 국제인명센터 (IBC)의 “Top 100 Health Professionals”과 미국 인명정보기관 (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의 ‘올해의 의학 및 건강보건 분야 의학자 (Man of the Year in Medicine & Health Care 2010)’로도 선정되어 등재된 바가 있어, 미국의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와 인명정보기관(ABI), 그리고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발행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모두에 이름을 올리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논문 저술과 학회 발표 등의 활발한 연구 활동성공을 인정받아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마르퀴스 후즈 후 2017 평생공로상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상동맥 중재시술 분야를 비롯한 심혈관 질환 진료 및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온 고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베스 이스라엘 디커니스 메디컬센터(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BIDMC)에서 심근세포의 세포고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학회와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심장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시니어박람회 참가(광역치매센터, 인공지능암센터 주요 홍보)



조선대병원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주최한 「2017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에 참여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대표 병원인 조선대병원을 비롯하여 조선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등을 포함하여 200개 사에서 4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조선대병원은 전국 치매센터 중 가장 큰 규모로 오픈한 ‘광역치매센터’와 호남지역 최초로 ‘IBM사의 왓슨포온콜로지’를 도입 및 진료를 개시한 인공지능기반정밀의료암센터(이하 인공지능암센터)를 중점으로 홍보했으며, 이를

통해 방문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호남지역 최초로 IBM 왓슨포온콜로지를 도입하고 관련 진료과와 다학제 시스템을 구축한 인공지능 암센터에 많은 문의가 이뤄져 호남지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암 치료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 간호부 1004Day 개최



조선대학교병원은 10월 17일 오후 2시 신관 1층에서 건강한 목 디스크 관리를 위한 1004day행사를 가졌다.

조선대병원 간호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본적인 혈압·혈당 체크와 더불어 바른 목 관리를 위한 자세교육 및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 등을 참가자가 직접 체험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기정숙 간호부장은 “목 디스크 관리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자신의 건강을 항상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간호사회는 매년 10월을 ‘천사데이’로 지정하고 조선대병원 간호부에서 다양한 주제의 체험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병원을 찾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오송 주몽골대한민국 대사 방문



오송 주몽골대한민국 대사 일행이 10월 18일 병원을 방문해 의료협력 및 연수의 교육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박찬국 부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오송 대사, 울란바토르 부시장과 정형식 조선대부총장을 모시고 병원의 현황 및 해외의료봉사와 한·몽 연수프로그램, 몽골 의사 연수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송 대사는 “그동안 조선대병원이 몽골과의 의료협력은 물론 몽골의 의료발전을 위해 의사 교육에 매진해 준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을 토대로 양국이 더욱 공고한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몽골 제1중앙병원을 비롯 국립외상센터, 국립모자병원, 과학기술대학교, 국립암센터 등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울란바토르 부시장은 “과거 조선대병원이 몽골의 주요 기관과 MOU체결하면서, 이러한 의료협력을 토대로 몽골의 의료발전이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찬국 부원장 역시 “그동안 몽골과의 활발한 MOU체결과 의료교류를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며, 몽골의 의료발전에 더욱 보탬이 되겠다”며 멀리 찾아온 대사 일행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 대장암 공금증 풀어나가는 예방 캠페인 개최



조선대병원은 10월 20일 오후 2시에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장암 관련 다양한 공금증과 예방법들을 알리기 위해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조선대병원 소화기센터에서는 ▲대장암의 예방 ▲대장암 선별을 위한 대변검사 ▲대장암 선별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대장내시경 관련 이슈와 공금증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2시간동안 강좌가 이뤄졌다.

조선대병원 이준 교수(소화기내과장)는 “50세가 넘으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검사의 불편함 때문에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면서, “주기적인 검사만이 최선의 치료법임을 인식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한 운동 및 금주/금연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장암을 예방하자”며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 태국 북부 산족마을 일대 해외의료 봉사 다녀와



조선대병원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태국을 찾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의료복지 향상과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병원장 이상홍 교수를 단장으로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양은석 교수, 응급의학과 조수형 교수, 중환자실 전담의 안영준 교수, 순환기내과 기영재 교수, 외과 김민성 교수 등 의사와 간호사, 행정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태국 치앙마이 한인회를 찾아 80여 명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고국의 선진의료기술을 제공하고, 태국 맥코믹병원 의료봉사팀과 함께 의료혜택을 받

지 못하는 북부 산족마을인 ‘후어라오 마을’과 ‘매빙 마을’을 방문하여 혈압 및 당뇨 검사, 심전도·초음파 검사와 의료상담, 응급처치 등 ‘후어라오 마을’에서는 120여 명을, ‘매빙 마을’에서는 180여 명을 진료했으며, 각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축구공과 학용품, 의류 등 기증품을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태국 맥코믹병원과 ▲의사 교환 연수 프로그램 ▲학술 교류 활동 ▲ 정기검진 등 양측 기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국 치앙마이 한인회와 진료협정을 체결하여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진료지원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와 중환자실 전담의 안영준 교수의 학술 교류 세미나를 통해 맥코믹병원 40여 명의 의사들에게 조선대병원의 선진의료기술을 전파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손 위생 우수직원 시상식(2017년 3분기)



조선대병원은 10월 24일 하중현홀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 우수직원 시상식을 가졌다. 손위생 시상식은 환자안전과 의료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인 손 위생 수행에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 표창하는 행사이다.

이번 손 위생 시상식에는 총 8명의 직원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 최우수상(3명) - 정형외과 김동휘 교수, 교육연구부 송예준 인턴, 특수부서간호팀 김가영 간호사
- 우수상(5명) - 외과 류성현 전공의, 교육연구부 정도윤 인턴, 병동간호2팀 양혜리 간호사, 병동간호1팀 정세희 간호사, 재활치료팀 최규태 물리치료사

■ 조선대병원, 유방 및 갑상선 외과와 함께하는 유방암 이야기 개최



조선대병원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방암 강좌를 열었다.

서구적인 체형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 결혼 및 첫 출산 연령 증가등의 이유로 유방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강의는 ▲유방암의 원인과 치료(외과 김유석 교수)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관리(외과 김권천 교수)의 주제로 명쾌하고 알기 쉽게 진행됐다.

또한, (사)한국 국학원 최전일 원장의 ‘건강해지는 스트레칭과 호흡법 강의’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따라하는 등 열띤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 조선대병원, 제3회 '염증성장질환'에 대한 건강강좌 성료



조선대병원은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주제로 10월 26일 오후 4시에 하중현홀에서 건강 강좌를 개최하였다.

염증성 장질환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통, 설사, 혈변,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등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만성적인 질환이다.

이날 강좌는 ▲염증성 장질환이란 무엇인가? ▲염증성 장질환 진단 ▲염증성 장질환의 약물치료 ▲염증성 장질환의 비약물치료 순으로 진행하며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강의를 맡은 조선대병원 소화기내과장 이준 교수는 "대장내시경을 무서워하지 말고, 조기에 정확히 진단을 하여 장누공, 협착과 같은 합병증 발생을 낮춰야 한다"라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염증성 장질환 환자 배려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 광주 튼튼정형외과, 조선대병원에 발전기금 전달



조선대병원 이광주 튼튼정형외과(원장 임강철)로부터 발전기금 일천만원을 전달 받았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4

시 조선대병원 원장실에서 이상홍 병원장 및 튼튼정형외과 임강철 원장을 비롯해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병원에 발전기금 일천만 원을 전달했다.

■ 임길락 총무부장, 김경진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 수상

조선대학교병원 임길락 총무부장은 지난 10월 28일 사회적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 김경진 국회의원 으로부터 감사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평소에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자세로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등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길락 총무부장은 전국병원연수교육협의회 부회장 및 전국 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최인 약제부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최인 약제부장은 17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1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건강 및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약의 안전한 제공과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서 조선대병원 최인 약제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이다.

■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공동 교육 실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는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센터장 이철갑)는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전남 강진군, 해남군에서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연계하여 어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 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에서는 김 양식, 전복 양식,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촌계지도자를 대상으로 어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의와 예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어업인 재해 안전보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무등산 걷기대회에 희망 전달



조선대병원은 11월 13일 오전 10시, 무등산옛길에서 열린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치료기금 마련을 위한 '제9회 희망

걷기대회'에 참여하여 힘찬 발걸음으로 희망을 전달했다.

생명나눔희망걷기대회는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지부가 2009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9회째를 맞는 행사로, 광주 무등산을 걷는 '백혈병 소아암어린이 돕기 희망걷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소아암으로 힘든 투병을 하고 있는 어린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치료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무등산 옛길을 돌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하여 참가자들이 뜻깊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 역대 병원장과의 병원발전을 위한 간담회 진행

11월 15일 신양파크호텔에서 병원 발전을 위해 역대병원장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7대 김용일 병원장부터 20대 문경래 병원장까지 참석했으며, 이상홍 병원장과 현 집행부의 병원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앞으로 조선대병원이 더 성장하기 위해 역대병원장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센터장 이철갑)는 지난 11월 21일 전남지역 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실태조사를 비롯

한 연구와 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지역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전남 어업인을 대상으로 무릎 골관절염 연구치료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도 기존 어업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어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며 올해는 1개 과목만 시범 운영한 후 2018년부터 정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되어 2017년까지 어업인의 건강실태 조사 및 건강 관련 연구를 시행한다.

■ 제14회 빛고을 나눔장터 희귀난치병 어린이 성금 전달식

조선대병원은 11월 28일 오후 2층 하중현홀에서 '제14회 빛고을나눔장터 희귀난치성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2004년 '빛고을 최대 나눔장터'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14회를 맞이하는 '빛고을 나눔장터'는 100여 곳이 넘는 단체가 참여하며, 나눔장터에서 모아진 기부금은 병마와 싸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좋은PR착한기업, 아름다운가게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날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빛고를 나눔장터'를 통해 모인 수익금(2,164만여원)을 조선대병원에 전달하였다.

■ 임태환 약사와 박선희 약사,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수상



임태환



박선희

전국의 병원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술 성과를 공유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2017 한국병원약사회 학술대회 및 총회가 11월 25일~26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

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다양한 정부 포상이 이뤄졌는데, 특히 조선대학교병원은 2015년도 김광준 약사에 이어 두 번째로 미래병원약사상 수상에 임태환 약사가 선정되었고, 2014년 순환기약료전문약사를 취득한 박선희 약사가 노인약료전문약사를 취득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두 분야의 전문약사를 취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17일에 이뤄진 제31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는 최인 약제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약제분야에 조선대병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어린이 환우를 위한 키즈오페라 공연 성료



딸꾹!' 공연을 열었다.

고 있는 환아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사랑방미디어와 무등일보, 광주MBC, 국제로타리3710지구,

이번 오페라는 어린이들이 겪어가는 신체적·심리적 변화 등의 성장통을 주인공이 겪는 딸꾹질 콤플렉스에 빗대어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과 함께 크리스마스 특집에 맞춰 어린이 환우들의 공연 참가를 이끌어내고 선물을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 후에는 오페라 출연진들이 준비한 비타민 사탕과 캐릭터 책자 및 조선대병원 홍보팀에서 준비한 비누와 연습장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이벤트에 어른과 아이 모두 즐거움을 나눴다.

■ Best Smile 교직원 배지 수여식



김동민



김유나



오은숙

조선대병원은 '2017년도 교직원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고객 만족과 더불어 병원 이미지 제고에 힘쓴 교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베스트 스마일' 표창장을 선정하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감염내과 김동민 교수, 63병동 김유나 간호사, 원무팀 오은숙 선생이 선정되어 금 한 돈의 'Best Smile' 배지를 수여받고,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자리에서 전 교직원의 귀감이 되었다.

■ 보성 용정중학교 학생방문에 진로체험학습 진행



조선대병원은 12월 6일 병원을 찾은 보성 용정중학교 학생방문단을 맞아 진로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진로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의료직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로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습일정은 ▲심폐소생술 교육 ▲보건의로 직종별 업무 및 직업군 소개 ▲병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



조선대병원은 11월 15일(수) 오후 4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성(性)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상호간에 협약을 전달하였으며, 3년 동안 양 기관은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약물 치료 ▲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심리 치료 ▲ 기타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된 이래 물리적/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요인이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 시대의 많은 문제에 대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심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양 기관은 깊은 공감을 나눴다.

회복기 지원을 위한 심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양 기관은 깊은 공감을 나눴다.

■ 태국멕코믹병원장 외 6인, 조선대병원 방문



태국 멕코믹병원(병원장 Usaneeporn Sriminipun, 아짠 어의) 방문단이 11월 30일 오전 10시 조선대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멕코믹병원의 병원장 Usaneeporn Sriminipun[아짠 어의], 대외협력실장 Sudatip Songsakpricha[꺼이], 간호 부원장 Pungphant Inthaphant[쨌], 멕케이나병원 부원장 WARIT Anuchiracheewa[와릿], 과 이강기독병원 의사 ATHITHAN Sriminipun[아티탄] 외 선교사와 목사 2인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음압병동 및 하이브리드혈관센터 등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최신 의료 장비와 시설,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호남권역재활병원도 방문하여 선

진화된 맞춤형 재활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최첨단 재활기구들을 직접 체험하고 보조기구를 견학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광역치매센터 교육실에서는 박진영 선교사가 걸어온 아름다운 길을 멕코믹병원 관계자들과 조선대병원 교직원들의 가슴속에 새기는 초청 강의를 열었고, (주)동양의료기 김선창 대표이사가 멕코믹병원에서 소중하게 쓰일 의료물품을 기증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아짠 어의 멕코믹병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조선대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 및 진료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며 “선진의료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준 조선대병원측에 대단히 감사하며 우리의 교류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조선대병원, 몽골 전공의 수료식 진행



조선대병원은 12월 1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몽골 전공의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수료식을 가진 몽골 전공의 2명은 몽골국립의과대학 마취통증 의학과 바기와 마이며 10월2일부터 12월2일까지 2개월간 임경준 교수(마취통증의학과)의 지도로 수준 높은 연수프로그램을 마쳤다.

몽골 전공의들은 한목소리로 “조선대병원에서 교육받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다.”라며 “먼저 교육을 받고 몽골로 돌아간 선배들과 같이 몽골에서 더욱 의학에 정진하겠다.” 고 소감을 말했다.

■ 광주금연지원센터, 제2기 지역금연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재선정



조선대학교병원은 광주금연지원센터가 지난 3년간 1기 사업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 제 2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에 재선정되었다.

광주금연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난 3년간(2015~2017년) ‘단기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환경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며, 광주광역시 흡연자들의 흡연율 감소를 통해 직·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임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

앞으로 시행될 제2기 지역금연사업(2018~2020년)은 기존 1기 사업에 비해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병원 입원환자를 포괄하여 새로운 금연지원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 조선대병원,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의료봉사 실시



조선대병원은 12월 7일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료봉사단은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의료진과 간호사, 약사, 행정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100여 명의 장애인 체육선수들에게 진료 및 건강상담, 혈당·혈압체크, 약제처방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 조선대병원, 제17회 고혈압 주간 대학병원 시민강좌 열어



조선대병원은 12월 7일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제17회 고혈압 주간 대학병원 시민강좌’를 열었다. 정상혈압보다 높은 상태를 뜻하는 고혈압은 대표적인 성인병이자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취급받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고혈압은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 증상이 없고 혈관을 서서히 강화시켜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1. 고혈압이란? (정중화 교수) 2. 고혈압의 약물치료 (김현국 교수) 3. 고혈압의 생활요법 (기영재 교수) 4. 고혈압의 합병증 (박근호 교수) 순으로 고혈압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IBM 왓슨 포 온콜로지 Q&A

종양혈액내과 박치영 교수



지난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전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을 4:1로 격파하며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알파고가 바둑계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면 왓슨은 의료계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도 암 분야의 저널, 논문, 임상 시험 등의 최신 정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지만, 암 전문의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이 많은 정보를 다 알기란 어려운 일이다. 왓슨은 이러한 고민을 가진 암 전문의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자료 조사 시간을 줄여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이 가능한 이유는, 왓슨이 세계 3대 암센터로 꼽히는 미국 메모리얼 슬러켄터링(MSK)에서 300개 이상의 의학 저널과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를 포함한 1500만 페이지의 분량에 달하는 의학정보를 입력 받았고, 하루에도 100여건 이상 새롭게 발표되는 암 관련 논문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왓슨은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8초 이내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치료 방법에 대한 근거 논문,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 생존율, 약물간의 비교 등을 통해 암 전문의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돕는다.

- 각 치료방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증거 기반의 치료 옵션을 제공)
- 최신 의료정보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 제시
- 암다학제 전문의 협진팀 구성을 통한 진료 대기 시간 및 검사시간 단축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해 암치료를 돕는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이하 왓슨)’가 국내외에서 화두다.

조선대병원은 호남권역 최초로 ‘인공지능 왓슨’를 도입하고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 암센터(이하, 인공지능암센터)를 개소하여 9월부터 가동중에 있다.

조선대 병원 본관 1층 서편에 위치한 인공지능 암센터는 전용 대기실, 다학제 협진실, 암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학제 협진실은 환자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의료진이 앉는 구조이며 정면 벽에 대형 모니터가 3개 걸려 있다. 환자와 좀 더 소통하려는 의료진의 정성이 돋보이는 구조이다.

다음은 박치영교수 (종양혈액내과) 인공지능암센터장의 일문일답.

● 호남권역 최초 왓슨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환자 측면에서 효과가 있나?

왓슨 운영 이후 많은 암 환자가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 특히 기존에 일부 수도권으로 편중되었던 지역내 암환자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쏟고 지역병원으로 점차 관심을 돌리고 있다.

실제 왓슨을 접해 본 환자나 보호자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치료 효과나 부작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환자에게 맞춤 설계된 치료계획에 예상보다 더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 암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치료 방향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각과를 다니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체력적인면이나 시간적인면, 비용적인면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왓슨을 실제 적용해보니 어떤가?

의사, 암전문 코디네이터가 왓슨 포 온콜로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환자의 임상정보를 입력하면, 왓슨이 학습한 방대한 양의 의료서적과 논문, 진료기록 등을 분석·추론하여 개인별 최적의 맞춤 치료법을 찾아 제안하고, 이를 각 분야의 암전문의가 모인 다학제팀에서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암 환자의 중요한 결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암종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암종에서 의뢰진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수집된다.

우리나라의 암진료는 일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쏠림은 개선은커녕 쏠림이 있는 병원 내에서조차 일부 의사에게 편중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암환자가 다학제 협진실에서 5-6명의 전문의로부터 설명을 듣고 여기에 인공지능의 의견이 더해지므로, 당연히 환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는 크게 상승한다.

● 왓슨 도입후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왓슨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고, 치료방법 대한 확신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왓슨이 내놓은 치료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말은 아니다. 의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왓슨이 제시할 때 의사와 인공지능은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환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의료 서비스이다. 실제로 왓슨 도입 후 암 환자 커뮤니티에선 서울 내 대형병원 대신 왓슨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문의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 의사와 왓슨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왓슨이 제시한 치료가 근거가 없다면 절대 환자에게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왓슨과 의사의 의견이 크게 다른 적은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의견 차이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종 및 국가별 보험기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왓슨과 의사의 판단 모두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의견이 같더라도 왜 다른지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 혹여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환자에게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등의 강제적인 태도보다는, 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 왓슨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환자의 몫인가?

왓슨의 결정에 따라 의료행위가 행해져도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국 과실은 자연인인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왓슨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치료법을 찾아 제시해 의사의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환자가 왓슨의 결과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 판단은 의사의 몫이다.

● 광주 및 다른 지역도시는 KTX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KTX개통으로 인한 의료계의 시선과 왓슨적용으로 진료 차별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왓슨을 이용하려는 환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KTX를 통해 수도권과 시간적/거리적 공간은 좁혀져 점차 1일 생활권이 됨에 따라 지역 대학병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메리트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소위 빅5병원이라 일컫는 현대아산, 서울삼성, 서울대, 세브란스, 강남성모병원 등 메머드급의 대형병원은 넘쳐나는 환자로 인해 시설 및 병상을 확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한 번에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왕복이동하는데는 경제적, 시간적인 소모가 일반인보다는 환자들에게는 매우 크게 작용하는건 사실이다. 당장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했다고 하여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것이라 보는 건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시간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서울로 가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내에서도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암 치료에 대한 데이터에 왓슨을 이용하면서 축적되는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며 지역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개원 39주년 기념식 가져

“작은 개선, 큰 변화” “아시아 최고 치과병원으로 도약”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올해로 개원 39주년을 맞아 10월 25일(수)에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 및 교직원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개원 39주년 기념식 행사는 1부 사랑의 헌혈행사, 2부 기념식 및 치과병원 중장기 발전 전략 보고회(진료부장 손미경 교수), 3부 다과회와 그리고 제1회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학술대회

(10월 29일)로 진행되었다.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은 축사를 통해 “호남 최초의 치과대학병원인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39돌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린다.”라며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행복론 메모 중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인용해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교직원들도 높은 뜻을 세우고 정진을 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치과병원으로 거듭 날수 있을 것이다.”라며 병원발전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수관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6년 11월 1일 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작은 개선, 큰 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여 변화하고 행동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지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라며 “앞으로 1년 동안도 병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면서 내·외부적으로 우리 치과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치과병원 교직원의 복지 향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경영 포부를 밝혔다.

개원 39주년 기념 ‘제1회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학술대회’ 성료

“다양한 임상기술·지식 공유의 장 마련”



개원 39주년을 맞아 10월 29일(일)에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학술대회」를 개원의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Synergy and Big Change of Treatment” 주제로 1부(좌장 김동기 교수)는 4차 산업시대의 치과방향(박용덕 전임의),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턱관절 질환의 진단과 치료(유지원 교수), 치조골 재생술에서의 공간유지법(유상준 교수) 그리고 2부(좌장 황호길 교수)에서는 Endodontic treatment planning of challenging cases with

wisdom teeth(조형훈 교수), 보톡스 필러를 이용한 팔자주름과 사각턱 치료(문성용 교수), Back to the basic : 정확한 교합채득의 노하우(손미경 교수)로 각기 다른 조건의 임상에서 접했던 다양한 케이스와 연구사례를 발표하여 다양한 임상기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제9회 QI 경진대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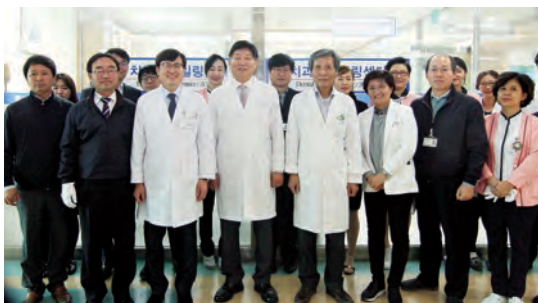


11월 14일(화) 오후 6시 10분부터 8시까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제9회 QI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QI 경진대회는 1년 동안 각 부서의 질 향상 활동을 전 교직원들과 나눔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질관리위원회(위원장 문성용)에서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총 9팀이 참가한 가운데 요즘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감염관리 및 외국인환자를 위한 진료 매뉴얼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다국적의 외국인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규격화되고 즉시 이용 가능한 진료용 폼(Form)을 만들어 진료 및 정보 전달시 활용하자는 '외국인 진료를 위한 보조 자료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한 LINK팀(팀장 성건화)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조선대치과병원 '치과스케일링센터' 개소식 가져



11월 6일(월) 12시에 치과병원 5층에서 '치과스케일링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치과스케일링센터는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치석제거)이 보편화되면서 스케일링 진료만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 전문화된 진료, 대기시간 등 환자 진료편의를 위해 전문센터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치과스케일링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 '손 위생대회 및 낙상예방 캠페인' 행사 가져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손 위생 및 낙상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11월 7일(화) 9시부터 12시까지 병원 로비에서 내원고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손 위생대회 및 낙상예방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손 위생 및 낙상예방 관련 유인물을 제작하여 내원고객 및 교직원에게 손위생의 및 낙상예방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환기시켜 환자 안전수준을 점검, 더욱더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내원 고객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6단계'를 교육하면서 40초 동안 올바르게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약 6만 마리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인성감염병의 약 50~70%는 손씻기 만으로도 예방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조선대치과병원 & (사)자평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찾아 진료봉사를 통해 격려와 위로”



조선대학교치과병원과 사단법인 자평(이사장 김수관)이 지난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강진과 그에 따른 여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치과 진료봉사 및 성금(2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번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진료봉사단은 조형훈 교수(단장)를 포함하여 의료진 2명, 진료지원 4명이 참여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지진피해 주민을 위해 구강검진, 치석제거, 틀니세정 등 치과진료를 실시하였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앞으로도 지진피해와 같은 자연재해나 인재가 발생 시에 신속하게 진료봉사단을 꾸려 진료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 “덴탈헬스케어산업과 제6회 치의학 연구원 설립”을 위한 포럼 개최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11월 2일(목) 3층 다산실에서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 박정환 미래산업정책관(광주광역시 전략사업본부), 박창현 회장(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배정찬 원장(광주테크노파크)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덴탈헬스케어산업과 제6회 치의학 연구원 설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사회적 조류에 맞춰 덴탈헬스케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치의학 연구원 설립의 중요성과 광주 유치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적극적

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이번 포럼을 개최하였다.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의료관련 산업이 미래 유망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치과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 할 방향과 산업체와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산업 육성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를 활발하게 논의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 제3회 아름다운 사랑을 위한 바자회 열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11월 29일(수) ~ 30(목)까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병원 교직원들로부터 의류, 장난감, 구강위생용품, 가방장식품 등을 기증받아 바자회를 실시하였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지역 생체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10월 11일(수)에 광주지역 대학병원(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와 광주지역 생체의료 3D융합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5개 기관은 광주 지역 생체의료 3D융합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 ▲환자 맞춤형 의료용품 제작 등을 위한 관련 장비 및 시설 공동 활용 ▲생체의료 융합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컨설팅 ▲생체의료분야 3D콘텐츠(VR/AR) 및 3D프린팅, 고부가가치 의료 소재 등 공동기술개발 ▲생체의료 관련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창업지원 ▲생체의료 관련 신사업 발굴 및 공동기획 ▲기술정보교류 및 인적교류 등 기타 협력사항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조선대치과병원, 치전원 3·4학년과 함께하는 '소통 도시락-Day' 가져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11월 8일(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6층 기초 실습실에서 치전원 3·4학년과 함께하는 '제3회 소통 도시락-Day'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들의 국가시험 합격 기원과 예비 치과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등을 함양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조선대치과병원, 용연학교 기부금 전달

“스스로의 꿈과 끼를 찾아가길...”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11월 30일(목)에 용연학교(교장 김돈희) 개교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전달식을 가진 용연학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중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운영되는 학력인정 대안 교육 위탁기관이다.

김돈희 교장은 “이런 관심과 후원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수관 병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용연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을 돌아

보며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치과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랑과 희망을 키우는 일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3회 인문학 강의 개최

‘문학과 미술에 나타난 자화상 읽기’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11월 14일(화) 3층 다산실에서 나희덕 교수(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예창작학과)를 모시고 치과병원 교직원들을 위한 제3회 인문학 강의를 가졌다.

이번 인문학 강의는 「문학과 미술에 나타난 자화상 읽기」라는 주제로 “근대의 자화상 예술 작품들을 통해 그 시대의 패러다임, 특히 자화상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내면을 솔직하게 봄으로써 다시 한번 참다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회 4차 산업혁명 강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우리 생활에 다가온 인공지능 기술은?’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11월 16일(목) 3층 다산실에서 정호엽 교수(조선대학교 IT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를 모시고 치과병원 교직원들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강좌를 가졌다.

이번 강좌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우리 생활에 다가온 인공지능 기술은?’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혁명과 큰 차이점은 육체적 노동과 단일화 된 작업환경에서 정신적 노동과 유니크(Unique)한 작업환경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인공지능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되는 동시에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회 4차 산업혁명 강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12월 5일(화) 3층 다산실에서 신종호 교수(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모시고 치과병원 교직원들을 위한 제2회 4차 산업혁명 강좌를 가졌다.

이번 강좌는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과 의료·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라며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주요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함으로써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

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임플란트, 잘 알면 내 치아처럼 사용 가능

잇몸 뼈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치료 선택
치료기술·의료 장비 발전으로 수술법 다양
환자마다 치조골 상태달라 전문 판단 필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 김수관



심한 충치나 치주 질환, 치아 외상 등으로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브릿지, 틀니 등등 몇 가지 치료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도 임플란트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임플란트는 무척 대중화된 치료법이 되었지만 여전히 치과치료 중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자와 환자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잇몸뼈 부족시 시술 어려워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부분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 치근을 잇몸뼈에 결합시켜 그 위에 상부구조를 만들고 보철물을 제작해 구강 내 심미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술식을 말한다.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잇몸뼈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잇몸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적절한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잇몸뼈가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임플란트를 잡아주지 못하게 되거나, 잇몸이 내려가서 심미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임플란트의 식립을 또한 어렵게 한다.

◆ 적절한 시술과 정기적 관리 '중요'

임플란트 식립시에는 주의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있다.

먼저 아래턱뼈에는 아래턱과 치아의 감각을 담당하는 하치조 신경이 지나가는데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가 부족하면 하치조신경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

사람의 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재생이 안 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신경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뼈가 부족한 부위에 골이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턱뼈에는 코 양 옆으로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 치아 결손부가 윗어금니일 때,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상악동이 아래로 많이 내려온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상악동을 관통하여 저작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위턱의 경우에도 아래턱과 같이 적절한 골 높이가 중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상악동거상술 또는 일반적인 골이식이 시행돼야 한다.

최근에는 치과 치료기술과 의료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 수술법이 개발되어 다양해졌다.

환자마다 치아와 치조골의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범위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환자에게 적합한 재료와 수술법을 선택하여 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하면서 쓰다면 오랜 기간 정말 내 치아처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삼일티엔씨 선영태 대표이사 ‘C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11월 27일(월) 오전 11시30분 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주)삼일티엔씨 선영태 대표이사가 ‘C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선영태 대표이사는 기금 전달식에서 미력하나마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선대학교 악성암돌연변이 연구센터(MRC: 유호진 센터장)의 연구비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선영태 (주)삼일티엔씨 대표이사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생물학과 81학번이다.

기금 전달식에는 (주)삼일티엔씨 선영태 대표이사, 조선대 강동완 총장, 김하림 교무처장, 김성중 대외협력처장, 김재수 연구처장, 임용 의과대학장, 유호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 2017월 10월 11일 ~ 2017년 12월 10일 |



성명	소속	약정 금액	개인별 누계
(재)조선대학교치과대학교육문화재단	(재)조선대학교치과대학교육문화재단	40,000,000원	1,513,520,000원
(주)동아하이텍		200,000,000원	200,000,000원
(주)메디바이오랩		600,802원	1,201,605원
(주)메디바이오랩		600,803원	1,201,605원
(주)삼일티앤씨-선영태	(주)삼일티앤씨	10,000,000원	20,000,000원
(주)엠에스제이		3,000,000원	3,000,000원
(주)은혜기업		1,680,000원	51,680,000원
(주)은혜기업		10,000,000원	51,680,000원
(주)진성에스엠알		6,000,000원	6,000,000원
(주)진학어플라이		35,000,000원	104,997,700원
(주)탐외국어사-김광성	(주)탐외국어사	7,821,900원	115,546,900원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한남수	대표이사	20,000,000원	44,500,000원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한남수	대표이사	20,000,000원	44,500,000원
가우스텍(주)		5,000,000원	5,000,000원
강지웅		100,000원	100,000원
곽정재		10,000원	10,000원
광주은행		330,000,000원	373,122,580원
권민기	공과대학	1,500,000원	8,079,600원
김경남		10,000원	10,000원
김경훈		10,000원	10,000원
김균영	대학본부	1,000,000원	14,964,800원
김도영		10,000원	10,000원
김동수		10,000원	10,000원
김민찬		200,000원	200,000원
김민희		10,000원	10,000원
김석원	의학전문대학원	2,000,000원	6,782,800원
김선형		10,000원	10,000원
김슬기		200,000원	200,000원
김아영		10,000원	10,000원
김아현		10,000원	10,000원
김영금		6,000,000원	6,000,000원
김옥희		100,000원	100,000원
김용진		10,000원	10,000원
김유신	단과대학	10,000원	10,000원
김정남		100,000원	100,000원
김종경	미술대학	2,000,000원	16,241,200원
김종옥		10,000원	10,000원
김죽란		10,000원	10,000원
김진기		50,000원	50,000원
김진태	공과대학	1,500,000원	9,470,000원
김진홍	사범대학	200,000원	3,040,400원
김학성		100,000원	100,000원
김한영		10,000원	10,000원
김현수	공과대학	1,500,000원	9,201,200원
김현실		10,000원	10,000원
김현정		10,000원	10,000원
김혜란		10,000원	10,000원
나주찬		10,000원	10,000원
민영돈	의학전문대학원	1,000,000원	50,914,400원
박동기		1,000,000원	1,000,000원
박수길		10,000원	10,000원
박재후		200,000원	200,000원
박종락	공과대학	1,500,000원	14,943,600원
박해경		10,000원	10,000원
박해성	(주)왕성테크	2,700,000원	4,873,910원
박혜인		10,000원	10,000원
박희숙		10,000원	10,000원



성명	소속	약정 금액	개인별 누계
서종은		6,600,000원	6,600,000원
서희민		100,000원	100,000원
손성우		10,000원	10,000원
손우영		10,000원	10,000원
송 범		100,000원	100,000원
신가재활		32,700,000원	32,700,000원
신란숙		10,000원	10,000원
신윤미		10,000원	10,000원
안영준	사범대학	200,000원	4,143,600원
안태정	공과대학	1,500,000원	8,403,600원
안태휘		10,000원	10,000원
양계남	미술대학 명예교수	10,000,000원	46,740,000원
오동렬	사범대학	200,000원	3,441,600원
왕희선	의학전문대학원	480,000원	1,258,800원
우종문		10,000원	10,000원
유연혜		10,000원	10,000원
유종덕		100,000원	100,000원
이관규	사범대학	200,000원	2,841,200원
이남근	사범대학	16,800,000원	29,527,200원
이동석		100,000원	100,000원
이명성		10,000원	10,000원
이성호		10,000원	10,000원
이순덕		10,000원	10,000원
이유진		10,000원	10,000원
이정희	의학전문대학원	3,000,000원	8,403,600원
이지영		10,000원	10,000원
임병춘	기획조정실	3,600,000원	12,904,800원
임영채		10,000원	10,000원
임정희		10,000원	10,000원
임현오		10,000원	10,000원
장동국	공과대학	600,000원	10,854,400원
전명원		10,000원	10,000원
전재민		10,000원	10,000원
전주연		10,000원	10,000원
정권철	인사혁신처	1,200,000원	7,261,200원
정용준		200,000원	200,000원
정현기		100,000원	100,000원
정혜경		10,000원	10,000원
정희망		10,000원	10,000원
조광희	사범대학	1,000,000원	12,710,800원
조규춘	미술대학	3,400,000원	14,184,000원
조규춘외24명		1,000,000원	1,000,000원
조영익		10,000원	10,000원
조은희	사범대학	1,000,000원	5,985,600원
조정남		10,000원	10,000원
주기남	공과대학	1,500,000원	8,163,600원
차 선		10,000원	10,000원
채영중		10,000원	10,000원
최인화		10,000원	10,000원
한현주		300,000원	300,000원
황정기		10,000원	10,000원
황진우		10,000원	10,000원
황해민		10,000원	10,000원
황해정	사범대학	200,000원	3,620,000원
합 계		802,333,505원	